

대립군

시나리오 신도영
각색 정윤철 윤진호 강경필 손광수
감독 정윤철
제작 리얼라이즈 픽처스

- 자막 -

힘들고 위험한 군역을 피하려고, 장정을 사서 대립(代立)을 세우는 일이 잦으니 그 폐단을 장차 금하기 어렵습니다. 여진족과 대치하는 평북 산간지방과 왜침이 잦은 전라도 해안지역에서는 대립(代立)으로 생계를 꾸리는 이들과서 생기면서 이들을 속되게 일컬어 대립군(代立軍)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 (1439년) 中

1. 국경 어딘가 / 낮

맑고 높은 봄 하늘. 다양각색의 들꽃이 가득한 들판.
오합지졸 느낌의 정규병들 건너편에 함께 매복 중인 대립군들.
복장은 제 각각에, 노획한 적들의 무기까지 걸쳐 사나워 보인다.

자막 : 선조 25년 임진년(1592년) / 평안북도 국경

무리의 대장인 토우가 대열 앞에서, 먹이를 노리는 호랑이처럼 숲속을 노려보고 있다.
소년병 쇠돌이가 긴장해 떨며 헛구역질을 하자 다가와 노려보는 토우.

토우 무섭냐? 죽는 게?
쇠돌 네.
토우 미치도록 무서워야 적을 죽일 수 있다.
 용맹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야. 알겠느냐?
쇠돌 명심하겠습니다.

그 때, 조선인 포로들을 끌고 숲으로 들어서는 백여 명의 여진족들.
하지만 정병들은 준비가 안 되었고, 긴장해 화살을 떨구는 이들조차 있다.
한심하게 보던 토우가 호각을 불자 대립군들이 튀어나와 공격을 시작한다.
방패와 창검으로 조를 짜 전진하며 여진족들을 조여가는 대립군들.
날렵한 느낌의 공달이 연신 활시위를 당기면 족족 쓰러지는 여진족들...
조승의 육중한 청룡도와 겹늬어 보이는 청년 왕춘의 장검도 매섭다.

하지만 들판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에 있는 조선관군 본진 부대는 미동도 없다.
방금 전, 함께 매복해 있던 정병들도 뒤에서 불구경하듯 지켜만 본다.

두 배가 넘는 수의 여진족들을 상대로 맹렬히 싸우고 있는 수십 명의 대립군들...
전세가 유리해지자 대열을 풀고, 흩어진 여진족들을 쫓아 공격한다.
우물쭈물하는 쇠돌에게 달려들다 화살을 맞고 쓰러진 여진족.

토우 (쇠들을 향해) 찔러! 어서 !!!

하지만 겁에 질린 쇠들이 바라만 보자, 갑자기 별떡 일어나 달려드는 여진족.
넙다 도망가는 쇠들을 도와주려다 여진족 두목이 던진 도끼에 맞아 쓰러지는 대립군.
이를 본 토우가 두목을 쫓아가 칼로 베는 순간, 갑자기 등쪽에 올라타는 여진족 한 명.
그 틈에 두목은 말을 타고 도망가지만, 결국 공달이 날린 화살에 죽는다.
등에 붙은 찰거머리를 간신히 내던진 후, 목에 칼을 들이대는 토우.
갑자기 비실 웃으며 조선말을 내뱉는 작달막한 여진족.

골루타 언제까지 이 꼴로 살 거요? 허구헌날 지겹지도 않나?

토우 (놀라며) 너?

골루타 나도 한때 택처럼 딱한 팔자였지.

오랑캐놈들은 양반 상놈도 없고, 싸움만 잘 하면 장땡이요.

그러니 목숨 그만 팔고 그쪽도 이리 넘어오슈...

토우난 머리 미는 건 질색일세.

변발한 여진족의 머리를 칼등으로 가격해 쓰러뜨리는 토우.
도끼를 맞은 대립군에게 달려가 절명을 확인하곤 한숨을 내쉰다.

2. 국경 다른 곳 / 낮

싸움이 끝나자 그제야 물려와 죽은 여진족들의 목을 베어 가마니에 담은 관군들.
옆에서 머리 갓수를 장부에 적고 있는 무관들... 전적이 좋은 듯 입이 귀에 걸린다.

왕춘 (침을 뱉으며) 버려지 같은 새끼들...

죽은 대립군을 여진족으로 알고 목을 작두로 베려하자, 비명을 지르는 쇠들.
왕춘이 달려가 실수한 관군을 걷어차며 흠뻘 두들겨 팬다.
어느 새 다가와 죽일듯한 표정으로 쇠들의 따귀를 날리는 토우.

쇠들 (울면서) 죄송합니다...무서워서 도저히.....

냉혹한 표정으로, 옆에서 죽어가는 여진족을 창으로 찌르라고 하는 토우.

토우 (쇠들이 버티자) 산 채로 목이 잘리는 걸 보고 싶으냐?
전쟁터에선 이게 은덕을 베푸는 거야!

쇠들이 계속 거부하자, 억지로 뒤에서 붙잡고 강제로 창을 찌르게 하는 토우.
결국 쇠들의 창에 숨이 끊어지는 여진족 병사...뉘이 나가 울면서 주저 않는 쇠들.

토우 진짜 무서운 건 대립을 서다 돼지는 거다! 나 애비처럼!
그럼 멍청한 자식놈이 또 끌려오니까, 이렇게!

창을 내던지고 썩썩거리며 멀어져가는 토우.
울고 있는 쇠돌이를 딱하게 바라보는 대립군들... 공달이 다가와 등을 토닥여 준다.

공달 세상사는 다 잊거라. 다른 사람 대신 와서, 찌르고 죽일 뿐이니
최스러워 할 까닭도 없다. 식솔들 목구멍에 거미줄 치는 걸
보는 게 가장 못할 짓인 거야.

3. 조선군 군영 앞 / 해질 녘

군영으로 복귀한 후 점고를 받고 있는 대립군들... 피곤한 표정으로 서 있다.
마치 가축때가 도망갔나 살피듯, 그들의 머릿수를 일일이 세는 군관과 향리.
군관이 호명하면 손을 든 후 앞으로 나와 곡식을 한 되씩 받아가는 대립군들.

군관 온지촌 박평도 대립 ?
조승 (귀찮은 듯 손을 든다)
군관 숙천 사는 정두이! (답이 없자) 정두이 대립 누구야...!
왕춘 (곡수를 보며) 너잖아 멍청아.
곡수 앗, 여기 있소! (웃으며) 하... 이번 새끼 이름은 영 안 외어지네.
하두 바뀌다 보니...그놈이 그놈 같고.
군관 평달촌의 남태동이...

서로 무겁게 바라보는 대립군들.

향리 뭐야. 도망갔나? (둘러보며) 누구야! 남태동이 대신 온 놈!
토우 ...죽었소.

거적에 덮여 있는 대립군의 시신이 보인다.
힐끔 본 후 무표정하게 말하는 향리.

향리 저런. 조심 좀 하지. 아직 한달이나 남았는데...얼른 누구라도
들여보내라고 전하게. 대립비 먹은 거 토해내기 싫으면..
왕춘 (분통) 아니, 그게 피도 안 마른 시신 앞에서 지금 할 소리요?
향리 이런 썩을...죽긴 누가 죽어? (군적부 보여주며) 남태동이는 아직 여기
시퍼렇게 살아있어! 너흰 죄다 허깨비라구! 돼져도 돼진 게 아냐!
당장 대가릿수 안 맞춰놔?

꼭수 요즘은 멀쩡히 군역 온 놈도 일부러 내쫓는다던데...? 대립 붙여
 뜯어 먹으라고...? 이렇게 뽀뽀히 굴면 누가 올란가, 니미.
 향리 이런 쌍! 때려치던가 그럼!

화가 치밀어 꼭수의 따귀를 때리는 향리.
 눈이 돌아간 꼭수가 대들려고 하자 모두 말린다.
 꼭수가 칼을 뽑으려 하자 무릎을 차 주저앉히는 토우.

향리 (이죽거리며) 지금 이 짓 하려고 한양까지 줄 쏘어!
 누구 덕에 안 굶어죽고 사는데 이 호로 새끼들이...

서로 바라만 볼 뿐 어찌지 못하는 대립군들.

4. 군영 근처 별판 / 밤

저 멀리 술을 마시며 왁자지껄한 군영의 반대편 어두운 별판.
 대립군 주검 앞에 무겁게 앉아있는 토우, 씩씩한 표정.
 피 묻은 호패(허리에 차는 조선시대 신분증)를 쥐고 바라본다.
 몇 걸음 앞에선 주검을 매장할 구덩이를 누군가가 파고 있다.
 대립군들 일행, 거하게 취해 토우 옆에 둘러앉는다.

기생 여기 계셨네? 범도 무서워 피해 갈 우리 대장님...
 우리 아재들, 목숨줄 쥐고 있으신데 자, 한잔 받으시오.

보자기에 싸온 술병에서 술을 따라주는 늙은 기생.

공달 (호패를 보며) 흥병갑.... 이 친구 진짜 이름이, 이거였군.
 왕춘 누구여 그제. 나한테 아직 황개 형님인데.
 기생 저런.. 서로 이름도 아직 모르나봐.
 꼭수 니미릴, 무슨 벼슬 났나? 그까짓 거 알아 뭐해.
 곰보 (시신을 보며 한숨)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지만 난 이 친구가
 부럽구먼. 지옥에 떨어진들 대립절보다 더 힘들라고.
 꼭수 거, 늙은이가 재수 없게...지금 여가 지옥인디 어딜 또 가?
 (기생 가슴을 주무르며) 난 요것만 있음 극락이여.

무덤 파는 남자를 노려보는 왕춘.

왕춘 형님, 그런데 저 박쥐같은 새끼는 대체 왜 데려온 거유?
 모가지를 싹둑 베어 관군놈들 던져줘도 시원찮을 판에?

토우 (무심히) 대립질하다 도망친 놈은 저승에서도 안 받아줘.
죽은 황개의 남은 기간을 마저 채운다.
그 집엔 대신 끌려올 자식놈도 없어.

어이가 없다는 듯 입이 벌어지는 일행들.
무덤을 파다가 뭐가 재밌는지 킬킬대는 골루타.

토우 ...죽지 마시게. 다들.

옆에서 곡수와 텅구는 기생의 신음소리가 점점 높아진다.
그 때, 쇠돌이가 저 멀리 있는 산봉우리를 가리킨다.
까마득한 산꼭대기에서 봉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조승 뭐지? 또 여진놈들이 그새 쳐들어왔나?
콩달 (바라보다가) 저건... 남쪽에서 올라오는 건데.
조승 남쪽? 왜구들? 근데 왜 이 변방까지...

봉황불 갯수가 그새 다섯 개로 늘어난다.
긴장한 표정으로 목을 빼고 바라보는 토우와 일행들.

콩달 뭔데.. 저렇게 많아. 왜구놈들 노략질 해봐야...

사람들 걱정스레 바라보고, 토우도 안색이 어두워진다.

5. 전쟁 몽타쥬

조총 소리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피를 흘리며 퇴각하는 조선 병사들.
왜병들이 새까맣게 치고 올라오며 공격 중이다. 전멸하는 조선군들.
불타고 있는 마을의 모습. 거대한 전란에 휩싸인 조선의 땅...
야밤에 한양을 떠나 도망치는 임금과 대신들. 초라하기 그지없다.

6. 영변으로 가는 길 / 낮

말을 탄 관관들을 따라 남쪽으로 행군하고 있는 관군과 대립군들.
모두들 두렵고 초조한 표정으로 침묵 속에 걷고 있다.
그 사이에 손이 묶인 채, 짐을 지고 가던 골루타.
감시하는 왕춘과 눈이 마주치자 이를 드러내며 웃는다.

왕춘 웃지마 자식아. 목구멍에 똥 보여.

꼴루타 죽으러 가는 기분이 어때? 왜놈들에 비하면 여진은 양반일 걸.
 내가 한때 남도에서 대립질 해봐 잘 알지.
 왕춘 아가리 안 닥쳐, 이 오랑캐 놈아?
 니미릴...이번만 하고 때려칠라했는데 이게 뭘 지랄이여...
 조승 니깻 녀이 관두면 뭐 먹고 살게? 대신 곤장이라도 맞을 거냐?
 왕춘 각시가 대립 때려쳐야 시집 온다해서 내 약조했소. 관두기로.
 제 오라비도 대립 뛰는데...줄초상 치르기 싫다고.
 조승 안 봐도 흰하구만. 집안 꼬라지가...

그 때, 저 멀리 언덕에 말을 탄 왜병 두 명이 나타난다. 긴장해 멈추는 조선군들.
 침묵 속에서 조총을 겨누는 왜병. 쿵! 하는 굉음과 함께 발사되는 조총.
 병사 한 명이 쓰러지자, 공포에 질려 흩어지기 시작하는 관군들.
 쿵! 쿵! 몇 발의 총성이 울리자 혼비백산하여 도망간다.
 단 두 명의 왜병에게 유린당하는 어이없는 모습.
 혼란이 잦아들자 대립군들 외엔 거의 남아있지 않다. 난감한 표정의 토우.
 왜병들이 뿌린 종이 전단을 주워들고 바라보는 공달.

토우 최후병들 같은데...
 공달 (보며) 자기들은... 새로운 왕을 세우려 왔다는군. 조선에.
 토우 영 글러먹은 소식만은 아니네.

7. 영변 감영 주변 / 밤

밤길을 걸어 감영 근처에 접어드는 대립군들 일행,
 문 앞에 백성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어 놀란다.

인솔군관 저희는 국경에서 오는 병사들입니다.
 내금위장 저게 다인가?(부하에게) 길을 터줘라!
 백성들 (몰려들며) 한양도 버리고 평양도 버리고 이제 영변도 버릴 셈인가!
 내금위장 주상 전하께서 이곳에서 왜적들과 결사항전 하겠다고 약조하셨다!
 그러니 안심하고 집에 가서 기다리고들 있으라!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차는 왕춘.

왕춘 임금이 벌써 여기까지 쫓겨 왔음 전쟁은 해보나 마나 아니요?
 노인 (토우의 손을 잡으며) 제발 우리를 지켜 주시오.....부탁이요.

무리 속에서 손을 내미는 비쩍 마른 노인과 눈이 마주치는 토우.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인 후 노인의 손을 간신히 뿌리치고 감영 안으로 걸음을 옮긴다.
 감영 마당에 놓여진 임금 선조의 어가.

8. 영변 감영 안 / 밤

마당을 거닐던 닭 한 마리가 선조가 있는 영변부사의 집무실로 들어간다.
그 뒤를 쫓아 들어가면 정참판(동인)과 좌의정(서인)이 싸우고 있다.

좌의정 왜놈들이 대동강을 건넜다잖소! 평양이 떨어지면 이곳 영변은
순식간이요! 주상전하의 안위가 최우선입니다.
임금이 살아야 백성도 사는 것 아니겠소?

정참판 어떤 책에 그리 쓰여 있소?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거늘
어찌 백성을 버리고....

지켜보던 선조가 머루를 내던진다. 날아가 박살나는 머루.
침묵 속에 서로 죽일 듯이 노려보는 정참판과 좌의정.
그들 사이를 유유히 돌아다니는 닭...내관들이 잡으려해도 용케 도망간다.

선조 나는 왜놈들 손엔 못 죽는다. 죽어도 중국에 가서 죽을 것이다.
차라리 임금 자리를 내려놓겠다. 원하던 게 이거 아니더냐.
(뛰쳐나가며) 세자는 어디 있느냐? 광해를 불러와라!

9. 영변 감영 안 / 새벽

감영 마당으로 내의녀 덕이와 내관들이 와락 달려 나온다. 누군가를 찾고 있다.
그 때, 남내관이 멀리서 감영 담벼락을 넘으려는 젊은이를 가리킨다.
달려간 일행들에 의해 결국 끌려가는 젊은이.... 그는 세자인 광해다.
감영 내로 이동하면서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토우와 대립군 일행.

10. 영변 감영 안 숙소 / 밤

억지로 붙잡혀와 급히 곤룡포로 갈아입고 있는 광해. 세상없이 어두운 표정.
옆에서 덕이와 궁녀들이 바빠 시중을 든다.

덕이 울렁증은 좀 가라앉으셨사옵니까? 저하, 환약을 하나 더 드시옵소서.

광해 (낮이 나간 듯) 백약이 듣겠느냐, 지금...? 되었다.
...사약이나 있으면 한 사발 들이키고 싶구나.

덕이 그런 흉한 말씀 마소서. 이제 마음을 단단히 잡수셔야 하옵니다. 저하.

광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예전에도 우리 같이 궁궐을 몰래 나갔던 적이...

누나 같은 덕이가 환약을 입에 처넣자, 이내 아이처럼 고분고분 받아 삼키는 광해.

11. 영변 감영 안 창고 / 새벽

허름한 감영 창고에서 머무르고 있는 대립군들. 초조한 표정.
창 밖으로 짐을 챙기며 뛰어다니는 궁중 나인과 내시들 모습. 불길하다.
창고문을 열려고 하는 곡수. 하지만 밖에서 잠겨있다.

곡수 이런 씨발, 누굴 개돼지로 아나...망할 군관놈 새끼.
조승 이대로 있다간 우리만 여기서 왜놈들 화살받이가 되는 거 아닌감?
토우 (보다가) 기다리고들 있어. 잠깐 둘러보고 올테니.

창문을 도끼로 부수는 토우.

12. 영변 감영 다른 곳 / 새벽

감영 안을 가로질러 어디론가 다급하게 가는 고위 군관.
그는 세자를 호위하는 익위사의 양사이다. 정참판이 나타나 앞을 막아선다.

정참판 영변부사님도 이미 내뺐네. 동궁을 모실 병력이 충분하겠는가?
양사 상황이 녹록친 않사옵니다.... 워낙 갑작스런 결정이라.
정참판 신하란 자들이 주장을 말할 생각은 안 하고, 같이 부추겨 도망갈
 생각만 하다니... 이 죄는 내가 반드시 묻겠다.

벽 모퉁이에 숨어서 대화를 엿듣고 있는 토우...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다.
저쪽에서 붓짐을 쥐고 달려오는 덕이를 발견하고 낚아채는 토우.
놀라 눈이 휘둥그레지는 덕이의 입을 막으며,

토우 셋!...잠깐. 뭣 좀 물어봅시다.

덕이가 간신히 꼬덕이자 손을 푸는 토우.

13. 영변 감영 마당 / 밤

무릎 꿇은 채 덜덜 떨고 있는 광해. 초라한 분조식이 열리고 있다.
전위교서를 펼쳐들어 무미건조하고 빠르게 읽기 시작하는 선조.

선조 세자 혼은 평소 명명하고 겸손하며 효성과 우애가 두터우며 인품이
 너그러워 대위에 오르기에 합당하다. 일국의 왕과 다름없는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이 나라와 백성들을 보위하고,..

뒷쪽 담벼락 구석 그늘에 몸을 숨긴 채 이를 바라보고 있는 토우.
선조와 광해를 바라보는 토우의 얼굴로 카메라 천천히 다가가면,
그 위로 아까 덕이와 나눴던 대화가 들려온다.

덕이 방금...주상전하께서 분조(分朝)를 결정하셨습니다.
토우 분조...?
덕이 조정을 둘로 쪼갬단 말입니다.
토우 무슨 박도 아니고 어찌 그걸...? 임금도 쪼갬답니까...
덕이 그런 셈이지요. 세자저하에게 조정을 나눠주신답니다.
임금님은 명나라로 원군을 요청하러 가시고,
세자 저하는 여기 남아 왜놈들하고 싸우라는 것이지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광해. 소스라치게 떨며 외친다.

광해 아니옵니다... 이건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선조가 눈짓을 하자 광해를 억지로 무릎 꿇리는 내금위장과 병사들.
광해를 뻥히 보다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무표정히 교서를 다시 읽는 선조.
순식간에 선조의 낭독이 끝나자 ‘천세, 천세 천천세!’ 외치는 대관신료들.
교서를 말아 봉인한 후 광해에게 내미는 선조.

선조 함정도 강계로 가서 신철 장군에게 이 교서를 전하거라.
그럼 너를 임금처럼 떠받들어 모실 것이니... 함께 힘을 합쳐
흠어진 관군과 각 지역 의병들을 모아 결사 항전의 틀을 다지거라.

선조가 교서를 내밀지만 안 받으려고 하는 광해.
물끄러미 보다가 같이 떠나게 될 정참판에게 척 건네준다.
얼떨결에 받으며 씩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는 정참판.
선조와 함께 명으로 떠날 서인들의 시선이 은밀히 교차한다.

서인 대신 (속삭이며) 광해가 왕이 되면 명으로 간 우린 어찌 되는 거요?
세자 책봉도 반대했는데...

가늘게 한숨을 내쉬는 좌의정의 속을 알 수 없는 눈빛.
뒤이어 선조가 왕을 상징하는 교룡기를 하사한다.
교룡기에 그려진 두 마리의 용. 이를 바라보는 토우의 시선.

14. 영변 감영 내부 / 밤

인술군관과 함께 감영 어디론가 급히 이동 중인 대립군들.

정찰을 나갔던 토우도 뛰어 들어와 일행들과 함께 움직인다.

왕춘 (토우를 보며) 왜놈들이 쳐들어 온 거유? 벌써?

뿔줄에 있는 쇠돌이를 다급히 부르는 토우.

토우 내 말 잘 들어, 넌 틈을 봐서 마을로 돌아가거라.
가서 우리 식솔들 모두를 피신시켜라. 알겠느냐?

쇠돌이 어디로요?

토우 모두 임금의 피난길을 따라가라고 해. 살 길은 그것뿐이다.
우린 대립기간을 마치자마자 돌아올 것이니... 어서 가라!
이곳은 곧 난리가 날 것이다.

15. 영변 감영 내부 / 밤

감영 마당에서 원행을 떠날 병사들을 점검하고 있는 양사.
선조를 모시고 갈 내금위장이 병사들을 반쯤 빼가자 길길이 화를 낸다.

양사 말이 조선의 분조지, 일개 고을 수령 행차만도 못하니 이게 대체....!

그 때, 도착하는 토우와 대립군들.

군관 여기 대령했사옵니다.

양사 (초라한 행색을 보고) 아니, 이 놈들은 정규군이 아니지 않느냐!
세자저하의 원행길에 이런 쪽정이들을 감히...씩 물러가거라!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정참판.

정참판 아니,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땐가, 다들 집어넣게.
(대립군들 보며) 너희들....함경도 지리를 잘 아느냐?

16. 영변 감영 입구 / 밤

감영 문 앞에 서 있는 선조와 광해의 어가.
어린 신성군과 함께 어가에 올라타는 선조. 이상하리만치 차분하다.
뒤쪽 세자의 어가에 탄 광해.... 도살장에 끌려가는 표정.
양사의 지시로 맨 앞에 배치된 대립군들.

조승 이것 참...임금님을 다 모시다니 오래살고 볼 일이구만.

왕춘 꿈엔들 상상이나 했겠소...우리 팔자에.
곡수 쥐구멍에도 벌들 날 있다더니...뭔 조화야 이거.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울한 곡소리...토우,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낀다.

토우 다들 정신 바짝 차려!!!

17. 영변 감영 문 밖 / 밤

마침내 선조의 행렬이 밖으로 나오자, 수백 명의 백성들이 일제히 통곡을 시작한다.
천지를 흔드는 고향과 절규에 압도당하는 선조의 일행.

내금위장 어디 감히 전하의 길을 막는 것이냐? 병사들은 뭇들 하는가?

뒷쪽 내금위 병사들이 밀어붙이자 앞으로 밀려나가는 토우 일행.
백성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며 맨 앞에서 뚫고 나가려 애쓴다.

왕춘 이럴 줄 알았어,젠장.
조승 어딜 가나 개 같은 짓은 다 도맡아하는 팔자구만.

아비규환 속에서 최대한 백성들을 보호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대립군들.
백성들은 사생결단으로 울고 불며 어가를 저지하는 중이다.

백성1 상감이 떠나면 우린 다 죽습니다... 아이고...
백성2 약조를 지키시오, 약조를... 여기서 결사항전 한다 하지 않았소?
백성3 세상에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임금이 어디 있소?
백성들 (일제히) 도망치는 왕은 필요 없소! 끌어 내립시다 !!
 차라리 왜놈들에게 잡아다 바칩시다!!

성난 백성들이 돌을 던지며 달려드는 순간, 갑자기 비명과 악쓰는 소리가 터진다.
내금위 병사들이 몽둥이와 칼로 진압을 시작한다.
바로 앞에서 칼을 맞은 백성의 피가 튀기자 겁에 질린 광해.
양사의 다급한 지시로 광해의 어가 쪽으로 이동한 토우와 대립군들,

토우 모두 대열 갖춰! 칼은 안 돼.

방패를 들고 어가를 둘러싼 후, 육박전을 벌이며 백성들을 뚫고 나가는 대립군들
적이 아닌 제 백성과 벌어지는 슬픈 전투.
영변에 도착했을 때 만났던 노인을 발견한 토우... 손자를 안고 서럽게 울고 있다.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돌이 토우의 이마를 강타하며 선혈이 흐른다.

어가 행렬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겨진 백성들의 피와 시신.
저 멀리 영변 감영에 치솟는 불길. 백성들이 불을 질렀다.
가마 밖으로 고개를 내어 돌아보는 광해의 절망스런 표정.
먹빛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18. 영변 외곽 들판 / 아침

어느 새, 선조의 어가가 저 멀리 가물가물 사라진다.
하지만 비를 맞으며 앞드려 계속 절을 하고 있는 광해.
들판 한구석에 서 있는 대립군들... 다들 뉘이 나간 듯한 표정.
토우, 이마에 흐르는 피를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침통하게 서있다.

곰보 평생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진짜 무간지옥은 따로 있었구만.
공달 꿈엔들 상상이나 했겠나! 임금이 도망치려고 제 백성을 해하다니...
곡수 염병, 아주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만.
왕춘 (무기를 챙기며) 이렇게 무작정 끌려갈 순 없어. 얼른 뜯시다.
공달 무단 이탈은 참형일세. 식솔들 노비 만들고 싶은가?

가려는 왕춘을 말리는 일행들.

조승 어찌면 좋겠나? 함경도까지 가면 돌아올 수나 있겠어?
토우 어차피 지금 조선 팔도에 목숨이 위태롭지 않은 곳이 있겠나?
함경도는 산세가 험해 왜놈들 만날 일도 거의 없을 것이고,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 게야. 갔다 오면 얼추 대립기간도 끝날 거고...
왕춘 (답답한) 지금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그깟 대립 마치는 게 문제요?
토우 나라가 망해도 우리 팔자는 안 바뀌어!
더 도망갈 데가 있었나, 우리한테? 여기서 또?
가! 갈 사람은 당장 가라고! 갈 데라도 있으면 말야.

침묵에 빠진 일행들. 통탄스런 한숨들만 나온다.

토우 (선조 일행 가리키며) 애비가 아들도 버리고 내뺄는 세상이야...
정신들 차려! 아까 그 백성들 끌 나기 싫으면!!

토우를 적막하게 바라보는 대립군들.
빗속에서 쭈뼛히 광해를 지켜보는 토우.
선조의 어가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자 절을 멈추고 천천히 일어나는 광해.
무릎이 저려 비틀거리고, 덕이와 궁녀들이 황급히 주물러 준다.

19. 영변 외곽 들판 / 아침

원행을 떠날 병사들의 인원을 점검하고 있는 양사.
익위사 병사들과 대립군들 합쳐 기껏 이십여 명이 전부이다.
한 쪽에 줄 서 있는 대립군들을 쏘아보며 말하는 양사.

양사 잘 듣거라. 왕세자 저하를 모시는 막중한 역할을 가며이 여기고
도망치거나, 행여 세자저하에게 털끝만큼이라도 해가 생긴다면
네놈들 뿐 아니라 식솔들까지 다 참형을 면치 못하리라!

수군거리며 긴장하는 대립군들... 토우가 나서며 입을 연다.

토우 소인들의 책무는 다 하겠습니다만, 한달 후면 대립이 끝나니...
다시 돌아와 식솔들을 돌봐야 합니다.

양사 뭐라? 네놈이 정녕 죽고 싶은 게냐? 어딜 멋대로 돌아와?

양사가 칼을 뽑아 목에 대지만, 겁내지 않는 토우.

토우 목숨 팔며 사는 신세지만, 소인들은 노비가 아니옵니다.

양사 군율을 어기며 대립질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참형 감이다!

정참판 (보다가) 어허, 왜들 이러냐.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이게 무슨...

죽일 듯 노려보며 칼을 내리는 양사.

정참판이 토우와 대립군들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 부드럽게 말한다.

정참판 보다시피 나라꼴이 말이 아닐세. 지금은 신분의 귀천을 떠나
모두 하나가 되어 전란을 극복해야만 해. 하지만 자고로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지... 우리 분조는 강계에 도착 즉시 무과를 치를 걸세.
전란 중이니 화살만 쏠 수 있으면 모두 관직을 받고 정규군이 될 것이네.

왕춘 그럼... 소인들이 포졸도 할 수 있는 것이옵니까?

정참판 (웃으며) 어디 포졸 뿐이겠는가. 앞으로 남의 군역 대신 살며
푸대집 받을 일은 없을 걸세. 자네들은 줄 잘 선 거야!

민기지 않는 왕춘. 다른 대립군들도 얼굴이 확 밝아진다.

‘포졸이면 녹봉이 보리쌀 서말이야...’수군거리는 사람들.

토우의 눈빛에도 뭔가 일렁이지만 표정은 자못 담담하다.

토우 나랏님 말씀이니 어련하시겠습니까만은....
일단 모두 몸 성히 도착하는 게 우선이겠지요.

20. 영변 외곽 길 / 아침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광해의 분조. 50명이 갓 넘는 초라한 행렬이다.
군병들이 선두에 서고, 뒤로 광해의 어가를 따르는 대신과 내관 및 궁녀들.
그 뒤를 따라 짐을 지고 걷고 있는 대립군들.

공달 차라리 잘 됐어. 전란 중에 공을 세우면 노비도 면천 받고,
벼슬까지 한다지 않던가. 팔자를 고칠, 하늘이 주신 기회야.
토우 물에 빠진 사람이 무슨 말을 못하겠나. 너무 심중에 두진 말게.
공달 어쨌든 평양에 끌려가 왜놈들 손에 개죽음 당하는 것보단 낫지.
토우 ...진짜 무서운 건 왜놈들이 아닐 수도 있어.

왕이 있음을 알리는 교룡기(交龍旗)가 선두에서 외롭게 휘날린다.
함경도 강계까지의 머나 먼 원행이 드디어 시작된다.

21. 평양성 / 낮

평양성 앞에 모여 있는 수많은 백성들의 환호소리가 들린다.
마치 개신장군처럼 들어오는 왜군들, 백성들에게 쌀가마니를 나눠준다.
몰려들어 곡식을 받아가며 환호하는 백성들... 만세를 부르는 이들도 있다.
말 위에서 이를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이 되는 왜장의 모습.
부관이 상황 보고를 하자 인상을 찌푸리며,

왜장 왕이 명을 향해 떠났다... 벌써? 정녕 싸울 의지가 없단 말인가?
혹시 우릴 끌어들이려는 작전은 아니냐?
부관 대신 왕자들을 싸우라고 보냈답니다.
왜장 어디로 말이나?
부관 큰 아들 임해는 한양을 탈출할 때 이미 회령 쪽으로 보냈고,
세자까지 영변에서 함경도로 의병을 모으라고 보냈답니다...
왜장 의병? 백성들 말이나? (환호하는 백성들을 보며) 저들이 우리랑
싸울 것 같은가? 이미 저들은 우리 백성이야!

22. 함경도 회령 관아 / 낮

대낮에 기생을 끼고 술판을 벌이고 있는 임해군과 수행 인원들.
관아 마당에는 의병이랍시고 월패들이 십여 명 모여 술을 퍼마시고 있다.

관리 이렇게 의병들도 모으시고 대단하십니다. 임해군 저하...

임해 (코웃음) 저것들이 의병? 아서라, 조정이 도망간 판에 누가 싸울꼬....
 뭐 의병은 잘난 왕세자가 모으겠지. 나아 떨어진 낙엽 신세다.
 박대감 원래 비 오는 날에는 좋은 옷을 입지 않는 법입니다.
 게다가 전란 중에는 온갖 일들이 생길 수 있겠지요.
 임해 무슨 뜬 구름 잡는 소리요? 분조까지 꾸린 마당에..
 박대감 광해군이 정말 왕위를 잇는다면, 명으로 간 서인들은 후일 죄를 물어
 탄핵을 받을 수도 있으니, 미리 손을 안 쓰겠냐 말입니다..
 임해뭐 알고 있는 거라도 있는 게요?

미묘한 웃음을 짓는 박대감.

그 때 떠들썩한 소리와 함께 들이닥치는 지방 관리 국경인과 현지인들 수십 명.

국경인 잘 하는 것이다. 니 애비가 이리라고 여기 보냈느냐?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23. 회령 목사 집무실 / 낮

왜장 가토 앞에 꿇어앉은 임해군 옆에서 말하는 국경인 무리.

국경인 저희는 백성을 돌보긴 커녕 제 살길만 궁리하는 조선의 왕을
 더 이상 섬기지 않을 것ियो. 여기 왕자를 잡아 바치니
 장군께선 전쟁을 빨리 끝내 더 이상 불필요한 희생을 막으시오!

느긋한 표정으로 물어보는 가토. 통역사가 번역을 해준다.

가토 너희들은 왜 여기에 있는가?
 임해 (떨며) 난 아무 권한도 없소. 내가 비록 장손이지만 왕세자는
 차남인 내 동생이요.....조선은 조정을 둘로 쪼갬으니 지금은
 그가 왕이나 마찬가지요. 그러니 그를 잡고....나는 풀어주소.

바라보는 국경인과 현지인들. 낮이 뜨겁다.

부관 평양에 입성한 병력이 왕을 놓쳤으니 우리가 왕세자를 잡으면
 큰 공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가토 서둘 거 뭐 있겠나? 어차피 그 자도 백성들이 잡아다 바칠 텐데...?

폭소를 터뜨리는 일본 장수들.

가토 (부관을 향해) 선발대를 보내 왕세자를 반드시 생포하도록.
 히데요시님께서 분명 기뻐하실 것이다.

24. 회령 근처 / 낮

강계를 향해 출발하는 왜군 선발대. 500여 명.
흙먼지를 일으키며 기병과 보병이 섞여 이동한다.

25. 시골길 / 낮

오월을 맞은 조선의 산하. 참혹한 전란 중임에도 푸르고 싱그럽다.
드문드문 나오는 민가, 인적이 드문 밭과 산길을 지나는 광해의 분조 일행.
광해는 어가 안에서 두문불출 책만 보고 있다. 어가 안에 수북히 쌓여 있는 책들.
비지땀을 흘리며 행렬 속에서 온갖 짐을 메고 걷는 대립군들,
닭장을 통째로 지고 있는 곰보와 가마솔을 짚어진 골루타도 보인다.

조승 괜찮을까? 화적때도 우글거린다던데?
곡수 여진놈들만 하겠소? 우리 손에 걸리면 빠도 못추릴 걸!
 (궁녀들 보며) 하, 저것들, 선녀가 따로 없네. 보기만 해도 아랫도리가...
왕춘 이런 썩을...쫓방맹이 잘못 휘두르다 목 날아간다!
 네놈 땀에 찍혀 무과시험도 못 보면 어쩔라구...
정남 얼마나 걸릴까? 이렇게 느려 터져서야.

행렬 앞에서 지휘하고 있는 정참판과 양사.

정참판 강계까지 대략 얼마나 걸릴 것 같나?
양사 (지도를 보며) 늦어도 열흘 안에는 도착할 것입니다.
정참판 분조에 우리 조선의 명운이 걸려 있네.
 세자 저하와 우리의 앞날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니....

갑자기 행렬의 앞이 멈추어 선다.
어가에서 광해가 급히 내려 구토를 하기 시작한다. 얼굴이 하얗게 된 광해.
뛰어난 김상궁과 덕이, 남내관 등이 걱정하며 양사와 뒤통수를 애기한다.

양사 (소리친다) 오늘은 여기에서 머무를 것이다. 준비하라 !

26. 폐가 근처 / 오후

길가의 어느 폐가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분조 일행.
흰 쌀밥은 물론 굴비에, 광해를 위한 닭백숙까지 차려진 분조의 저녁 식사.
초라한 식사를 하던 대립군들, 산중에 풍기는 냄새에 났을 땀이다.

남내관 세자 저하께 이런 소찬이라니... 참...

김상궁 (빈정 상한) 근데 왜 이리 오셨대? 고생을 사서 하시네.

남내관 (부채질하며 거드름) 전하의 특명이시오. 잘 보필하라는.

먹을 기분이 안 나는 듯 죽그릇을 힘없이 바라보는 왕춘과 곡수.

하지만 아랑곳 않고 맛나게 먹는 토우, 뭍인 채 밥을 먹는 골루타를 보며,

토우 풀어 줘. 도망갈 놈은 어차피 가게 되어 있어.

27. 폐가 / 밤

폐가 안에서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는 광해. 주변을 지키는 양사와 군병들.
정참판이 은밀히 다가와 이르는 소리가 들린다.

정참판 잘 지키게. 또 도망칠지 몰라. 그럼 우린 다 죽은 목숨일세.

28. 폐가 앞 / 아침

다음 날 아침, 광해와 대신들이 선조가 향하는 의주를 향해 큰 절로 문안을 올린다.
둘러앉아 원행길에 대해 논의하며 옥신각신하는 대신들.
그들은 마치 광해가 없는 것처럼 취급한다. 광해 또한 별 관심이 없는 듯....

29. 강변 / 낮

강한 오후의 햇볕 속에서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는 분조의 행렬.
교룡기를 든 익위사 병사가 줄다가 깃발을 놓치자 양사가 걷어챈다.

왕춘 (보다가) 엠병...아주 신주단지 모시듯 하네...

근데 저 깃발 말야... 왜 용이 두 마리일까?

곡수 암놈 수놈 아냐...? 한 놈이면 적적하니까.

해가 어느 새 기울고, 멈추는 행렬... 천막을 치며 숙영을 준비한다.

30. 근처 언덕 위 / 오후

공달과 토우가 근처의 언덕에 올라 전망을 살핀다.

공달 한눈에 들어오니 여기서 보초를 서야겠네.
토우 (내려다보며) 사방이 트여 기습당하기 딱 좋겠군.

저 아래 개울에서 덕이와 궁녀들이 광해를 씻기고 있다.
장성한 나이지만 궁녀들에게 어린애처럼 몸을 맡기는 광해.
사타구니도 씻어주고, 머리도 감겨주는 궁녀들.

공달 이 와중에도 옥체를 저토록 보전 중이시니...부럽네.
토우 환갑 되도 저리 닦아주나? 불알까지?
공달 (웃음) 자네... 말이 좀 불경하구만.
토우 말이 돼? 제 몸 하나 스스로 못 건사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겠다니.
공달 장차 왕이 되실 분일세. 우리가 평생 또 만나나 볼 것 같아?
토우 글썽...하지만 타고난 성정이 용맹함과 거리가 먼 것 같네.

말간 게 꽤 잘 생겼으나, 타고난 어두움이 서려 있는 광해의 얼굴.

31. 강변 숙영지 / 밤

촛불이 켜진 천막 안에서 책을 펴고 강의를 하는 정참판.
광해를 위한 경연(세자를 위한 공부)이 진행 중이다.

정참판 맹자는 군주가 자기 자식을 돌보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먹이면 백성들이 구름처럼 모여든다 했습니다....

책을 바라보는 광해 옆에서 연신 부채질을 해주는 남내관.
배석한 대신들은 거의 졸고 있지만 아랑곳 없이 설파하는 정참판.

정참판 다른 군주들이 땅을 넓히기 위해서 백성들의 목숨을 전쟁터에서
소모하고 있을 때, 만약 부모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간답게 살게 해준다면 천하의 어느 백성이 그 군주의 백성이
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무심히 듣던 광해는 갑자기 윗 글이 적힌 책장을 찢어 우적우적 씹어 먹는다.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라는 정참판.

광해 책에는 참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들 곤장 잊어버리니....
이렇게라도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야겠지요.

딱히 할 말이 없어 다시 글을 읽기 시작하는 정참판.
멀찍이서 보초를 서며 세자 일행의 경연을 바라보는 대립군들.

공달 대단해. 과연 조선은 유교의 나라답구만.
 왕춘 (기가 막혀) 니미....시방 글공부 해? 난리가 터진 마당에?
 공달 아무렴, 성군이 되려면 전시에든 학업을 게을리 해선 안 되지.

그 때, 주변을 살피고 돌아온 토우.

토우 (불안한 듯 둘러보며) 달이 너무 흰한테..
 왕춘 형님은 걱정도 참... 여기가 무슨 여진놈들 있는 국경도 아닌데.
 에휴...하늘의 달을 보니...내 각시 생각도 나고.

하늘을 보면 커다란 보름달이 떴다.
 순간, 밤하늘을 가로질러 날아오는 수십개의 불꽃들.

왕춘 뭐야 저거! 저것이 혹시... 도깨비 불 아십니까?

하지만 그것은 불화살들이다!
 강건너에서 날아온 불화살들이 광해의 천막에 맹렬하게 박힌다.

양사 저하를 보위하라!! 저하를 보위하라!!

불타오르는 광해의 천막. 하지만 화살이 집중되어 다가가기 어렵다.
 왕춘 등의 엄호를 받으며 겹싸게 광해의 천막으로 들어가는 토우.
 천막 안의 광해, 불타는 책들을 꺼내려다가 옷에 불이 옮겨붙는다.
 토우, 광해를 끄집어내어 구르다시피 내려와 개울에 그대로 처박는다.

토우 몸을 낮추시고... 여기에 잠시 계십시오 !

불화살을 맞은 익위사 병사가 굴러 떨어지자 놀라며 옆으로 피하는 광해.
 인기척에 뒤를 보면, 어느 새 목만 내놓고 숨어 있는 골루타.
 놀라서 뒷걸음질 치다 더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고 허우적거리는 광해.
 하지만 싸움에 정신이 없어 광해를 보지 못하는 토우,
 공달과 함께 땅에 박힌 불화살을 뽑아 연신 강 건너를 향해 시위를 당긴다.
 대립군 한명이 화살을 맞자, 열 받아 강을 건너려는 왕춘과 곡수.
 순간 거짓말처럼 화살이 멈추고 강 건너는 암흑 속에 빠진다.

32. 강변 숙영지 / 아침

새벽 미명에 드러나는...처참한 모습.
 광해가 머물던 천막은 형체를 알 수 없이 타버렸다.
 늙은 대립군 곰보는 다리에 화상을, 공달은 머리칼이 반쯤 탔다.

개울가에 나란히 놓인 시신들 몇구... 거기엔 인솔 군관도 보인다.
한편에서 널부러져 있는 대신들, 모두 낮이 나가 있다.

죽은 대립군의 시신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호패를 떼어내는 토우.
공달은 주검의 가슴에 박혀 있는 화살을 뽑아내서 살핀다.

공달 ...육량전이야. 아무나 날릴 수 있는 게 아니지.
토우 화적떼도 아닌 것 같네. 화살이 노린 걸 봐선...

화살이 집중된 광해의 처소를 바라보는 토우.
그때, 성이 난 양사가 갑자기 토우를 잡아끌고 광해 앞에 데려가 무릎을 꿇린다.
숫더미가 된 천막 안에서 불 탄 책들의 잔해를 보면서 침통해 하는 광해.
곧바로 돌아서서 토우의 뺨을 때린다.

광해 너 때문에 내가 목숨보다 귀히 여기는 책들을 잃었구나!

멍하니 바라보는 토우. 당황스럽다.

토우 ...책은 또 구하면 되지만 저하의 목숨은 하나뿐이십니다.
광해 내가 목숨보다 귀히 여긴다고 하지 않았더냐!

불탄 책을 집어 던지는 광해. 땅에 뒹구는 책을 바라보는 토우.

양사 저하께선 물을 두려워하십니다. 저하의 안위를 털끝만치라도
소홀히 하면 목을 친다 했거늘...네 놈이 감히 저하를...!
덕이 (광해에게 무릎꿇고) 고정하시옵소서. 어쨌든 저하를 구하려 했으니
용서하소서. 이들이 아니었다면...

순간, 우루루 다가오는 정참관과 대신들.

정참관 (양사를 보며 큰 목소리로) 자네는 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경계를 어찌 섰길래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생긴 것인가!
양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곧 놈들의 정체를 밝혀내겠습니다...
대신1 세자 저하, 더 이상 원행을 갈 수 있겠습니까?
광해 (침통히) 벌써 왜적들이 쫓아온 것인가?
토우 ...왜놈들은 아닙니다.
양사 네 이놈! 감히 어느 안전이라 끼어드느냐!
정참관 켜찮다. 말해보거라...
토우 왜군이라면 굳이 야밤을 틈 타 쥐새끼처럼 급습할 리도 없겠지요.
(강 건너를 보며) 그리고 이 정도 거리면 분명 각궁(角弓)일 텐데
왜놈들은 쓰지 않습지요.

정참판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각자 복잡한 상념에 잠긴 일행들.

양사 저하. 염려마소서. 수일 내로 왜군이 가까이 있는 곳까지 가면
이런 불경스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광해 (쑥쑥한 미소) 이 나라의 안위를 맡은 내가, 내 나라를 침범한
오랑캐에게 가까이 가야 제 안위를 살필 수 있다는 말이군.
토우위험하니 산길로 가지지요. 지름길을 알고 있습니다.
어가는 못 하지만 말은 탈 수 있습니다.
남내관 (끼어들며) 뭐라? 저하께서 말을?
토우 식량이 거반 타버려 최대한 빨리 가야 합니다.
양사 집에 얼른 돌아가고 싶어 그러느냐? 하지만 그건 네놈들이
결정할 것이 아니다.
토우 여기서 결정을 내릴 분은...오로지 단 한 분 뿐이십니다.

무심히 광해를 바라보는 토우의 눈빛은 명료하다.
분노한 양사가 대꾸하려는 순간, 들려오는 궁녀들의 비명소리.
토우와 일행들이 소리가 난 강변으로 달려가 보면,
강에는 수백구의 시체들이 끊임없이 떠내려 오고 있다.
군병과 민간인이 뒤섞인 것이 비참했던 상황을 말해준다.

덕이 (입을 가리고 울면서) 코가... 코가 없어요.
토우 잘라낸 것이요, 왜놈들이 전적 보고를 위해.
대신1 (공포에 질려) 벌써 왜놈들이 함경도에도 들어온 것이요?
정참판이래저래 큰 길을 따라 가는 것은 위험할 것 같소.

33. 산 밑 / 낮

산행을 위해 모두들 행장을 줄여 간소하게 짐을 챙기고 있다.
양사, 교통기를 반듯하게 접어 옷 안으로 소중하게 품고 일어선다.
속이 부글거리는 양사, 이를 악문다. 군관을 시켜 토우를 불러오는 양사.

양사 (칼을 겨누며) 앞으로 나의 허락 없이 함부로 나서면 그냥두지 않겠다.
토우 뽑는 건 잘 하시네. 칼 뽑는 것으로 무과를 치루셨소,
하긴 나도 한때 양반집 자제님들 대신 무과를 치러준 적도 있었지.
양사 뭐라...

발로 토우의 배를 걷어차는 양사.
불시의 기습을 받아 고꾸라진 채 신음 소리를 내는 토우.
분이 끓어오르지만 속수무책으로 이를 바라보는 대립군들.

34. 산 길 몽타주 / 낮

험준한 고개가 이어지는 함경도의 거친 산악지대는 상상 이상이다.
광해가 올라탄 가마를 든 대립군들의 표정이 죽을 맛이다.
대신이나 내관, 궁녀들이 시간이 갈수록 하나둘씩 도망쳐 사라진다.

초여름의 강렬한 햇볕... 나이 든 대신들이 폭폭 주저앉는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고, 가마에 차양이 있는 광해 외엔 모두 비를 맞는다.
그 때, 발을 잘못 디딘 궁녀, 사정없이 미끄러져 계곡 아래로 떨어진다.
비명을 지르는 김상궁과 덕이... 그러나 시신은 찾을 수 없다.

35. 산 길 / 낮

거친 산길을 올라가고 있는 광해 일행...
가마를 맨 곰보 영감, 다리의 화상과 체력 저하로 결국 쓰러진다.
토우가 영감 대신 골루타를 집어넣자, 못 미더워하는 왕춘.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그만 돌부리에 걸려 자빠지는 골루타.
가마 한 쪽이 쏠리며 곤두박질치고, 광해도 바닥으로 구른다.
팔꿈치가 까져 피가 나는 광해...

남내관 (펄펄 뛰며) 이런 급살맛을 놔들...세자 저하를 해하고도
감히 목숨을 보존할 줄 알았더냐?

양사가 골루타를 마구 때리더니 칼을 뽑는다. 막아서는 토우.

양사 저하께서 다치셨다. 책임을 물어야겠다.
토우 제가 대장 노릇을 하고 있으니 제 책임입니다.
양사 대신 목을 내놓겠다는 것이냐?...끓어라.

양사, 칼을 넣은 후 칼집으로 무릎 꿇은 토우를 연달아 내려친다.
겉에 질려 바라보는 골루타와 분한 표정의 대립군들.
피가 나는 광해의 팔꿈치를 치료하던 덕이 또한 걱정스레 바라본다.

광해 (아픈 듯 찡그리며) 어떻게 저런 자들이 예까지 왔단 말인가...
남의 군역을 대신 한다던데...그건 법도에도 어긋나는 일 아니더냐.
덕이 어렸을 때, 제 어미는 상가집에서 대신 울며 곡을 했더랬습니다.
그렇게 얻어온 곡식으로 온 가족이 보릿고개를 넘기기도 했지요.
저들도 분명 그런 딱한 사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덕이를 물끄러미 보는 광해

광해 고맙다....
덕이 황송합니다. 저야 당연히 제 소임을 다할 뿐...
광해 도망가지 않아서.

36. 산 속 / 밤

모닥불을 피워놓고, 노숙하는 일행들... 어디선가 늑대 울음 소리가 울려 퍼진다.
김상궁과 덕이는 그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김상궁 ...살아서 여길 나갈 수 있을까... 아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덕이 (환약을 주며) 주무시는데 좀 수월할 것입니다.

몰래 자리에서 일어나 약을 챙겨 대립군들 쪽으로 가는 덕이...
곰보 영감의 상처에 약을 발라준다. 헛것이 보이는 듯 중얼거리는 영감.

곰보 영실이냐.... 영실아....니가 여기 웬일이여...
곡수 (보면서) 작년에 앓다가 죽었다는 막내 딸년이 보이냐 보네.
곰보 영실아... 내 딸 영실아....
덕이 (손을 잡아주며) 네, 아버님. 저예요....기운 차리세요.
곡수 (웃음) 마음이 비단결이요. 나도 다쳤는데....요기 요기...

미소 지으며 곡수의 어깨에 약을 발라준 후, 토우에게 다가가는 덕이.

덕이 이걸 바르시면 어혈이 빨리 가라앉을 것입니다.

목례를 취한 후, 조용히 일어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덕이.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 울분을 토하는 왕춘.

왕춘 니미럴...병 주고 약 주네 정말....
 저 대장 새끼, 배알이 풀리니 저 지랄 아니요?
정남 우리 아니었음 벌써 다 황천길 갔을텐데..
왕춘 한번만 더 설치면 확 었자구. 대장놈은 내가 말을 테니..
토우 참아. 이제 기껏해야 며칠 남았다.
 되돌아가기에도 너무 늦었고.
조승 ...정말 강계에 도착하면 우리한테도 떡고물이 떨어질랑가?
공달 아무렴. 군사를 뽑아야 전쟁을 할 게 아닌가.
왕춘 제발 무과에 합격해서 개같은 팔자를 확 바꿔야 하는데..
골루타 (끼어들며)....멍청한 거야, 순진한 거야? 양반놈들 말을 믿다니..

어느 새, 일어나 덕이가 준 약을 찍어 바르고 있는 골루타.

왕춘 저 오랑캐 새끼가... 죽고 싶어 환장을 했나!
 네깻 놈 뽀에 우리 형님이 치도곤을 당한 마당에....
골루타 (키득대며) 차라리 날 따라 여진놈들한테나 가지 그래.
 공을 세워 팔자 고치려면 그게 빠를텐데. 아니지...
 차라리 왜놈들 어때? 세자를 데려가면 아주 좋아할텐데.

더는 못 참고 벌떡 일어나 골루타를 두들겨 패는 왕춘.
썩었던 화풀이를 하듯 마구 때린다. 사람들이 간신히 뜯어 말린다.
밤이라 목소리를 죽여 쏘아붙이는 토우.

토우 어차피 왜놈들에게 나라가 망하면 다 끝이야!
 잘 되든 못 되든, 이게 마지막 대립질이다. 알겠냐?
 그러니 입닥치고들 있어. 똤지지나 말고!

멍하니 토우를 바라보는 대립군들.
누워서 꼴록거리는 곰보의 기침 소리만이 정적을 깬다.

-시간경과-

바위 틈에 대충 마련한 침소에서 잠을 못 이루고 멍하니 앉아 있는 광해.
중간에 눈을 뜬 덕이, 광해를 보고 다가온다.

덕이 어디 불편하십니까? 너무 큰 고생을 시켜드려 송구스럽습니다.
광해 아니다...근태 강계에 도착하면 정말 의병들이 모일까?
 이렇게까지 해서 가야하는지 마음이 심란하구나.
덕이 주상전하께서 너무 하셨습니다. 하지만 약해지시면 아니됩니다.
광해 아바마마의 뜻이 과연 뭘지 모르겠다. 평소엔 문안인사도 잘
 안 받으시면서... 전란이 아니었음 과연 세자가 되었겠느냐?
 기껏 부랴부랴 싸운 병법서도 다 타버렸고, 전쟁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참으로 암담하구나...
덕이 (잠시 침묵) 어의님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늘 말씀하셨습니다.
 의서만 허구헌날 읽는다고 결코 명의를 되진 않는다고요.
 책에 나온 것만이 전부는 아닐테니 너무 심려치 마시옵소서. 저하.

덕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광해... 웬지 마음이 좀 편해진다.

광해 부디 잘 해내서 아바마마를 기쁘게 해 드려야 할텐데.

37. 산 속 / 아침

다음 날 아침, 곰보 영감은 깨어나지 않는다.
눈물을 흘리는 덕이와 대립군들...분에 차는 듯 소리를 지르는 곡수.
참담한 표정으로, 곰보의 허리춤에서 호패를 뜯어내는 토우.
곰보를 매장하는 대립군들. 광해도 이를 무겁게 바라본다.

양사 (재촉하며) 시간이 없다. 빨리 어가를 대령하라.

언덕길은 경사가 심해 보기에다 위태롭다.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는 대립군들.
그 때, 인상을 쓰고 보다가. 갑자기 어가 쪽으로 걸어가는 토우.
거칠게 어가를 밀어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뜨린다. 산산이 부서지는 어가.
모두들 놀라서 경악하고, 화가 치솟은 양사가 칼을 뽑아들려고 하는데
전광석화처럼 먼저 칼을 빼서 양사에게 겨누는 토우.

양사 네 이놈!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느냐? 대역죄를 저지르고 있는...

토우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광해의 놀란 표정.

토우 천만에. 모두 저하를 위해서입니다. 만약 저 안에 세자 저하께서
타고 계셨다 생각해 보시오. 실수한 제 부하들을 대역죄로 백번
능지처참한들, 이 나라의 운명은 이미 끝이외다. 그게 진정 대역죄
아니겠습니까? 후환이 될 것은 제 팔 한 쪽이라도 미리 끊어내야
마땅하지요. 특히 신하된 자라면 말입니다.

양사닥쳐라. 네 놈 목부터 끊어낼 것이다.

정참판 (토우에게) 당장 칼을 거두지 못할까! 어느 안전이라고 지금...

미련 없이 칼을 떨구는 토우.

양사가 발로 걷어차며 짓밟는다. 죽일 듯한 기세...

광해 멈춰라!

양사 (바라보며) 저하, 천한 놈의 말입니다. 귀담아 듣지 마소서...

광해 이치에 맞는 말에 어찌 귀천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깟 어가 따위 내 진작에 타기도 싫었다. 바람도 안 들고,
울렁거리고, 죽을 맛이다!

명하니 바라보는 양사와 대신들, 그리고 대립군들.

광해 일으켜 세워라. 갈 길이 머니 어서 가자.

걷기 시작하는 광해. 부리나케 뒤를 따르는 남내관과 덕이 등.

쓰러진 토우를 부축해 일으키는 대립군들,

곡수 (정남에게 속삭이며) 진작 건지...

38. 산 속 길 몽타주 / 낮

- 험준한 산길을 걷고 있는 광해 일행과 대립군들.
말을 타기엔 경사가 심해 말에서 내려 힘겹게 기다서피 걷고 있다.
맨 앞에서 사람들을 이끌며 길을 인도하는 토우.
난생 처음 가는 산길이라 힘겹지만 상기된 표정의 광해.
어디서 구했는지 나무 지팡이도 하나 들고 있다.
바위틈에 핀 산꽃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그런 광해를 신기한 듯 바라보는 다람쥐.
- 휘청대는 정참판을 뒤에서 받쳐주는 왕춘과 정남... 멧쩍은 듯 씨익 웃는 정참판.
뒤에서 기회를 노리다가 미끄러지는 궁녀1을 짹짹 잡아주는 곡수.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걷는 두 사람.
- 구릉지대를 통과하는 일행들. 한숨 놓이는 표정.
산딸기를 따서 모으는 덕이,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39. 산 속, 큰 개울 앞 / 낮

산 길을 내려서니, 폭이 넓은 개울이 나타난다.
모두들 건너지만, 광해가 물이 겹나 들어오지 못하자 양사가 등에 업고 건너간다.

노승 이봐, 짧은이~ 이쪽이요, 짧은이 -

보면, 개울가에 쉬고 있던 한 노승이 지켜보다가 광해를 부르며 손짓을 한다.
어이가 없어 아연실색하는 일행들. 양사의 등에서 슬며시 내리는 광해.

노승 노환 때문인가 갑자기 어지럽네 그러. 나도 좀 업고 건너 줄 텐가?

남내관 (기겁을 하며) 아니 어디서 감히? 이 분이 뉘신 줄 알고!

노승 왜? 이 나라의 왕이라도 되시오?

양사 그 입 다물지 못하겠소!

노승 아무리 봐도 왕이 될 팔자론 안 보이는구려.

남내관 아니 이, 이런 미친 맹충을 봤나? 이보게 양사, 무엇하는가!!

광해 (태연하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잘 아시네요.

스님께선 혹시 관상이라도 보십니까?

광해의 대범한 반응이 뜻밖인 토우.

노승 허허... 천만에요. 그냥 이런 산중에서 귀한 분을 만나 신기해 그럽니다.
토우 진란이 터져서 강계로 의병을 모으러 가는 길입니다. 스님께서는...
노승 승병을 구한다기에 가는 길ियो. 그렇다면 또 만나게 되겠지.
(광해를 보며 미소) 그리고 참... 팔자는 스스로 그려가는 것이라오.
언젠가 이 늙은이를 한번 업어준다면 아마 왕이 될 수 있을게요.
부처님 앞에 내 보장하리다.

불끈하는 양사와 대신들...노승, 대범하게 개울을 건너 저 너머로 사라진다.

남내관 저, 저 멀쩡한 노인네가... 양사, 뭐하시오? 활로 쏘버리시오.
광해 ...됐네.

광해, 노승이 사라질 때까지 그를 지켜본다.

40. 자작나무 숲 / 낮

말을 타고 산길을 가고 있는 광해. 양사가 고삐를 쥐고 있다.
자작나무 숲 앞에 다다르자 경사가 급해 말에서 내려 직접 걷는 광해.

조승 여긴 꼭 호랑이라도 나올 것 같네... 음산허구만.
(둘러보며) 그런데 오랑캐놈이 안 보인다 아침부터?
호랑이한테 물려간 거 아녀?
왕춘 에이 설마....먹을 게 뭐 있다구. 그놈, 안 씻어 냄새도 까무라쳐.

이때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온다.
광해가 잡고 있던 자작나무가지에 화살이 꽂히며 ‘쩍’ 소리와 함께 갈라진다.
곳곳에서 비명이 들리고 일행 중 몇몇이 화살을 맞고 쓰러진다.

왕춘 이런 니미탈! 드디어 왜놈들인가?
토우 다들 흩어져!

모두 화살을 피해 각자 뿔뿔이 흩어지는 일행들...
곧이어 복면을 한 자객의 무리들이 검을 뽑아들고 일순간에 달려든다.
광해군 쪽으로 달려오는 자객을 칼로 간신히 막아내는 양사.
정남과 등을 맞대고 싸우다가 나무 뒤에 숨은 광해를 발견하는 토우.
자신을 향해 다른 자객들이 달려오자 그대로 뒤돌아 도망치기 시작하는 광해.
토우는 광해 쪽으로 급히 달려가고, 곡수는 그런 토우를 바라본다.

41. 숲 속 / 낮

하나의 구름을 넘을 만큼 달려온 광해... 그 뒤를 끝까지 쫓는 자객 한 명.
있는 힘껏 달려온 토우, 자객을 향해 돌맹이를 냅다 던진다.
자객이 돌에 맞아 쓰러진다. 그러나, 모르고 계속 도망치는 광해.
토우가 쫓아가 뒷덜미를 붙잡자, 놀라 마구 칼을 휘둘러 토우의 팔뚝이 베인다.
그제야 토우를 발견하고 두려운 표정으로 칼을 떨구는 광해.
광해의 칼을 다시 주워 바라보는 토우,

토우상대를 베려면 먼저 상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망설이지 말고... (칼로 가지를 자르며) 단숨에...!
숨 한 번 들이키는 그 사이에 생사가 오갑니다.

토우, 칼을 다시 광해에게 쥐어주곤 천을 찢어 팔뚝에 흐르는 피를 닦는다.
순간, 갑자기 토우의 뒤를 가리키며 비명을 지르는 광해...!
토우가 돌아보는 순간, 돌을 맞고 쓰러졌던 자객이 어느 새 토우를 덮친다.
엎치락뒤치락 싸우던 토우가 광해에게 칼로 찌르라고 손짓한다.
하지만 광해...겁에 질려 오히려 뒷걸음질 친다.
목이 졸리던 토우, 손을 겨우 뻗어 돌맹이로 자객의 머릴 찍어 절명시킨다.
간신히 살아난 토우, 숨을 거칠게 들이쉬며 죽일 듯 광해를 노려본다.

토우만약 제가 죽었으면... 저하도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광해 미, 미안하다. 난 도저히...
토우 무섭습니까? 죽이는 게? 그럼 아무도 살리지 못합니다.
눈앞의 한 명도 못 구하면서, 어찌 수많은 백성을 구하겠소!!!

분노를 못 참고 폭발하는 토우.
발로 나무를 걷어차며 소리를 지르더니, 식식대며 멀어져 간다.
잠시 그런 뒷모습을 바라보더니, 무엇인가 홀린 듯 쫓아가는 광해.
전투가 끝난 듯, 광해를 찾는 군병들의 목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온다.

42. 계곡 옆 / 낮

숲속을 헤매고 다니며 광해를 찾고 있는 양사와 일행들의 목소리.

일행들 세자 저하 다 끝났사옵니다. 어디 계십니까, 세자 저하!!!
이제 괜찮사옵니다. 나오십시오.

들리는 소리에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 걷고 있는 토우. 그 뒤를 졸졸 쫓아오는 광해.

계곡 물이 보이자 내려가 엎드려 끝도 없이 들이마시는 토우.
옆에서 손으로 물을 떠 마시다가 이내 토우처럼 입을 대고 마시는 광해...
한동안 정신없이 물을 마시던 광해, 인기척에 고개를 들면,
어느 새 토우가 옷을 훌렁 벗은 후 계곡물에 침병 들어간다.

토우 이런 계곡은 호랑이가 우글거립니다. 게다가 피까지 흘렸으니...
광해 (놀라 두리번거리며) 저...정말이냐?
토우 아무래도 아까부터 한 마리가 쫓아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 속에 들어오면 놈들은 냄새를 못 맡습니다.

말을 마치고 물속에 쑥 들어가 잠수를 하는 토우.
광해는 혼자 졸지에 호랑이 먹잇감이 됐지만 물이 두려워 망설인다.
그때 정말로 뒤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자, 걸옷을 벗어던지고 풍덩 뛰어드는 광해.
눈코입만 내놓고 숨을 바라보는 광해의 시선에 보이는 노루 한 마리.
순간, 물에서 튀어나와 숨을 몰아쉬는 토우.

광해 (보며) ...진정 범이 있었더냐?
토우 그럼요. 제 뒤에서 주욱 쫓아왔습니다. 질 죽일려구도 했구요.

팔의 상처를 보여주는 토우...그제서야 토우에게 속은 것을 아는 광해.
물 속에 있는 걸 발견하고 잠시 얼어붙는다.

광해 ...감쪽같이 속았구나.
토우 용서하십시오.
광해 됐다... 나란 자가 원래 용맹치 못하고 배짱이 부족한지라....
토우 그런 분이 여긴 어찌 들어오셨습니까. 물을 그리 무서워하시는데.
광해 (둘러보며) 물보다는 범이 무서웠던 모양이지.
토우 용기도 안 날 것입니다. 무서운 게 없다면....
 왜 병법서에 절벽을 등지고 있는 적과는 싸우지 말라고 나왔겠습니까.
광해 (보다가) 아직 난 없나보다.. 등질 절벽이.
 그런데 넌 어찌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구나.
토우 그럴 리가요. 무서운 게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없이 물 밖으로 나가는 토우, 벗어놓은 옷가지에서 뭔가를 꺼낸다.
너댓 개의 피 묻은 호패 중 하나를 들고,

토우 엇그제 죽은 곰보 영감입니다. 저하의 어가를 메기도 했던...
 (호패를 보며) 송만식...죽어서야 우린 허깨비 신세를 벗어나지요.

광해는 물 속에 그대로 서서 바라본다.

토우 아무리 꺾어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처자식보다 가깝게 지내던
 동료들이 죽어 나가는 건...(광해를 보며) 제 두려움은 이것입니다.
 광해 차마 가늠하기 힘들구나. 내 한 몸조차 버거운 신세이니...
 토우 하지만 진정 땀박질 하나는 잘 하시더군요.
 저는 명나라까지 도망치시는 줄 알았습니다.
 광해 ...나까지 그리 가면 어찌하겠느냐.

그 말을 듣고는 갑자기 크게 웃는 토우....광해도 희미하게 따라 웃는다.
 더위에 먹을 감는 친구지간처럼 잠시나마 편안해 보이는 두 사람,

43. 자작나무 숲 어느 곳 / 낮

전투가 끝나고 주변엔 시신과 부상자들만 남았다.
 한쪽에선 곡수가 보살펴주던 궁녀1의 시신을 멍하니 보고 있다.
 정남은 배에 칼을 맞아 부상을 입었다. 천을 찢어 출혈을 막아주는 덕이.
 자객들의 시신 네 구를 살펴보는 토우.
 공달이 자객의 칼을 들어 바위에 힘껏 쳐본다. 소리가 길고 청명하다.

토우 ...강철검이군. 그런 건 개나 소나 못 쓰지 아마.
 놈들의 검법도 예사롭지 않았어. 필시 정식 훈련을 받은 자들일세.
 정참판 (애써 태연한 척) 어떻게 아직도 저놈들이 쫓아올 수 있는 건가?
 이런 험한 산길로까지 숨어들었건만...
 토우 (좌증을 둘러보며) 필시 우리 중에 내통자가 있을 겁니다....

광해와 정참판, 대신들...깜짝 놀란다.

양사 네 이놈! 말을 삼가거라. 어디서 감히 확실치도 않은...
 정참판 뭐가 잡히는 거라도 있는 게냐?
 토우 (돌아보며) 본 것을 말 해 보게.

어느 새 돌아와 있는 골루타. 이를 드러내며 비실 웃는다.
 비로소 그가 왜 안 보였나 깨닫고 새삼 놀라는 왕춘과 조승.

골루타 시키신 대로 한참을 뒤떨어져 따라가고 있는데..과연 누군가
 되돌아왔습시다요..나무에 종이 매듭을 묶어놓더군요.
 너무 멀어 다가가 얼굴을 보려는데 요망한 것이 눈치를 채고
 도망쳤습시다. 쫓아가 보니 그놈이 이걸 떨구었습죠.

그것은 부채다. 남내관이 늘 지니고 다니던.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는 남내관을 왕춘이 발을 걸어 쓰러뜨린다.

44. 계곡 옆 / 낮

뒤로 포박당한 채 억지로 물속에 처박히는 남내관.
곡수와 왕춘이 남내관을 계곡물에 처박으며 문초하고 있다.

대신 1 전란 중에 역적모의라?...죽일놈들! 명으로 간 자들 짓 아니겠소?
대신 2 아니면 신성군 쪽? 전하는 이미 그리 기울었잖소?
나이만 안 어렸어도 세자는 필시...
정참판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리는 게요?

설전을 벌이는 대신들을 보는 광해의 슬픈 눈빛...토우도 이를 보며 쓸쓸하다.
토우가 곡수와 왕춘에게 그만하라고 손을 들자 물에서 꼬집어내지는 남내관.
몰려오는 대신들,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남내관에게 다그친다.

정참판 누구냐? 진정 신성군 쪽이더냐?
대신 1 그쪽에 붙은 서인들의 짓이랬다??
대신 2 ...혹시 임해군 아닌가? 뒤편이가 영 글러먹었으니...
정참판 맞느냐? 임해 쪽이더냐? 대답해라 !!
남내관 (힘겹게)...지금 조정엔 분조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은 없소.
심지어 주상전하까지도 말이요!
정참판 네 이놈! 닥치거라! 어디서 감히 주상전하를?

광해의 컷전이 웅웅거린다. 힘없이 남내관에게 다가가는 광해.
얻어터지고 물에 젖어 엉망이 된 얼굴을 망연히 바라본다.

광해 아바마마까지? 그 이유를 아느냐...
남내관 ...세자 저하의 어머니가 누구니까?
광해 난... 얼굴도 모른다.
남내관 (비실 웃으며) 진 뵈습쇼. 궁중음식 만드는 나인이었습니다.
운 좋게 승은을 입어 임해군과 저하를 낳게 되었지만,
주상계선 곧 잊으셨습니다. 저하를 낳고 모친이 죽자...
광해 (창백해진)...그래서?
남내관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 싫으신 게지요.
광해 뭐라...?
남내관 본인이 서자인 주상께서, 또 다시 적통이 아닌 서자 출신을
어찌 또 왕으로 앉힐 수 있겠나이까. 짓도 차남을...!
정참판 이런 발칙한 놈! 어디서 감히... 네놈 헛바닥을 뽐아버리겠다...
네 이놈! 얼른 이실직고 못할까 !

정참판이 양사에게 눈짓을 하자 나무에 달아매고 몽둥이질을 시작한다.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하는 남내관....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서는 광해.

넋나간 표정으로 힘없이 중얼거리는 광해.

광해 그만해라....

대신들 (무시하고) 아니, 들어야 하옵니다. 그래야.. 저희가 삽니다.

광해 듣고 싶지 않다 !! 멈춰라.

직접 양사에게 몽둥이를 뺏어들고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정참판.

이성을 잃은 정참판과 대신들...

정참판 빨리 말 해! 누가 사주했느냐? 누가 우릴 죽이려 했느냐 !

남내판 (소리치며) 다 말하겠소....다 말하겠소....범인이 누군지...

난 시킨 대로 한 죄 밖에 없소....나를 사주한 쪽은...

광해 듣기 싫다니까 !!!!

광해...순간, 더는 견딜 수 없는 듯, 허리의 칼을 꺼내어 단숨에 휘두른다.

그와 동시에 모든 말도 허공으로 사라진다.

목에서 피를 뿜으며 발버둥치다 숨을 놓는 남내판...

누구보다 놀란 건 토우다.

광해의 얼굴엔 피가 튀고, 눈빛엔 살기와 깊은 좌절이 명멸한다.

45. 산길 / 낮

무거운 침묵 속에 이동하고 있는 분조의 일행들.

무표정하게 걷고 있던 광해가 갑자기 옆을 향해 빠르게 걷는다.

구룡을 넘더니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광해.... 황급히 주변을 살피는 토우.

광해는 구룡 아래에 놓여진 적막한 평원을 내려 보며 홀로 서 있다.

눈물이 고여 있는 광해의 눈.

고립무원의 처지...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뒤에서 바라만 보는 토우.

46. 산길 다른 곳 / 낮

화선지를 나무에 묶은 후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행렬, 더 험하다.

뒤편에서 걷는 대립군들.... 모두들 근심스런 얼굴.

왕춘 ...니미럴. 이 난리통에 대체 뭘 쓰잘데기 없는 핏줄 타령은..

공달 (쓸쓸하게) 양반님네들은 그게 아닐세...목숨마저 위태로울 수 있어.

조승 금수저 물고 태어나도 좋은 것만은 아니었구만.

어쨌든 이거 웬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생겼으니...

왕춘 세자가 어떻게 되면 우리만 골로 가는 것 아니요?

그 때, 곡수가 부축한 채 걷고 있던 창백한 얼굴의 정남이 쓰러진다.

곡수 이제 그만 합시다. 뭐가 이렇게 복잡해, 니미털.

토우가 노려보며 말한다.

토우 전투 중에 생각을 많이 하면 죽어. 우린 할 일만 하면 돼.

곡수 씨팔, 왜놈들하고 싸우다 돼지면 억울하지나 않지.

백성들 패고 나올 때부터 좇 같다고 생각했어.

토우 팔자를 고치고 싶다며? 쉬울 줄 알았어?

곡수 개빨 팔자를 고쳐? 줄 잘 선 게 아니라 썩은 동아줄을 잡은 거라고!

토우 그래서 우리 손으로 끊어내자는 말이나!

아직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어찌고.

곡수 (토우를 보며) 왜? 무슨 약조라도 받았소? 우리들 몰래?

토우 뭐?

곡수 세자가 뭐 한 자리 툭툭히 챙겨 준다고 합디까?

자기 목숨 끝까지 지켜주면?

주먹으로 때리는 토우. 그러자 곡수도 토우를 때린다.

생각보다 쎈 곡수의 주먹. 휘청하는 토우.

다시 토우가 주먹을 날리자 나가떨어지는 곡수.

곡수 (식식대며) 싸울 때 왜 우리 곁에 없었지?

왜 정남이를 안 지켜줬냐고! 대체 어디 갔었어!

형님. 변했소. 옛날하고 달라.

잠시 말이 없는 토우.

토우 난 늘 지금 이 순간 밖에 생각 안 해.

그래야 눈 앞에 날아오는 화살을 피할 수 있으니까.

활 시위를 안 떠난 화살은 절대 우릴 못 죽여.

날 못 믿는 사람은 떠나도 좋아.

하지만 아무도 쉬이 움직이지 못한다.

이때 들리는 정남의 커다란 신음소리. 이어서 뭐라고 중얼거린다.

공달이 지혈을 해주며 귀를 기울인다.

공달 (일행들에게) 자긴 돌아가기 싫다는군... 데려가 달래...

천천히 의식을 잃어가는 정남. 침통한 표정의 동료들.

공달 상태가 안 좋네. 안에서 피가 안 멎어.
토우 (생각하다가) 곡수, 니가 남아서 돌봐줘.
 돌아오는 길에 만나자.

47. 동굴 / 낮

작은 동굴에 정남을 눕히는 대립군들.
음식과 물이 든 보따리가 함께 놓여있고 곡수가 옆에서 지켜본다.
정남의 얼굴을 만지며 얘기하는 토우.

토우 걱정마라. 정남아. 우린 다 같이 집에 갈 거다.

희미하게 눈을 뜨며 웃는 정남.

48. 산등성 / 낮

숲 속을 빠져 나오면 겹겹이 펼쳐진 개마고원의 산 봉우리들.
힘겹게 산정상을 넘으면 저 멀리 산등성 너머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다.

왕춘 (골루타를 노려보며) 정말 이쪽으로 가도 되는 거야? 확실해?
골루타 소시적에 산삼 캐러 산골짜 죽어라 쏘다녔지.
 공납 물량을 채우라고 하도 지랄해서 튀었지만.

산등성이 바위틈에 걸터앉아 불안정하게 휴식을 취하며 식사를 하는 일행들.
왕춘이 생달알을 일행들에게 조금씩 나눠준다.
이를 받아가 광해에게 주는 덕이. 안쓰럽다.
손바닥에 놓은 낱알들을 한참 보다가 입에 털어 넣는 광해.

49. 바위 골짜기 / 밤

일행이 산속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 늑대들이 주변을 어슬렁거린다.
작은 모닥불 아래 몽둥이와 칼을 들고 밤새 지키고 있는 대립군들.
지금까지와 달리 더 초라하기 이를데 없는 풍찬노숙.

나무토막을 베게 삼아 땅 바닥에 누워있는 광해.
토우가 다가와 광해에게 췌을 건네준 후, 주변 땅에 밧줄을 둘러준다.

토우 이라면 뱀이 못 옵니다...

쇠약해져 덕이의 부축으로 간신히 일어서는 광해.
물끄러미 쫓을 보는 광해,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다.

광해 다들 고생이 많다. 주상전하를 모셨으면 편했을텐데.
덕이 ...조금만 기운 내소서, 저하.
광해 몸보다 마음이 괴롭구나... 어머니가 늘 그리웠다.
내가 안 태어났으면 돌아가지도 앓으셨겠지.
침부터 큰 불효를 지질렀기에 아바마마에게 더 잘 하려고
애썼건만...이제 알겠다... 나를 보면 자신이 보였던 게야.
그래서 그토록...안 주신 게야.. 사랑을.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보이는 광해.
몸을 떠는 광해의 이마에 손을 대어보는 덕이. 열이 있다.

-시간경과-

모두가 자고 있는데 누군가 일어나 홀연히 어디론가 가고 있는 실루엣. 광해다.

50. 절벽 / 밤

신비하게 밝은 달빛이 내려찍는 절벽 위에 위태로이 서있는 광해.
절벽 밑, 어둠 속을 바라보는 광해의 채념 어린 눈빛.

광해 어머니....

절벽 앞으로 한 발을 내딛는 광해.
모든 걸 포기한 듯 중심을 잃고 떨어지는 순간... 허공에서 낚아채는 손.

토우 (내뺨게치며) 절벽을 등지랬지, 누가 뛰어내리시랍니까?
광해무섭지 않다. 세상이 더 천길 낭떠러지다.
토우 도망치는 것은 이 나라 왕가의 내력이옵니까?
아버지는 명으로, 아들은 저승으로... 부전자전이 따로 없습니다.
광해 (처참한) 그렇다. 그게 나다! 왕 따윈 내 팔자가 아니다.
임금 같은 거 예시당초 하고 싶지도 않았단....
토우 그런 분이 병법서는 왜 그리 싸들고 와서 읽어대셨습니까?
목숨보다 귀히 여기며 제 뺨때기까지 때리셨잖습니까!

잠시 바라보는 광해. 울컥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듯 소리친다.

광해어차피 난 임금 대신 화염 구덩이에 던져질 허수아비였다!
 애비가 버린 자식, 더 살아서 무엇하랴...어차피 왕이 되지도
 못할 팔자, 내가 빨리 사라지면 모두가 이런 고생도 않을 것이다...!
 죽어 다음 생에는 그저 범부의 자식으로 평범하게 태어나고 싶다.

광해를 차갑게 노려보는 토우.

토우다음 생 같은 건 없소.

저벅저벅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토우.
 멍한 눈빛으로 천길 낭떠러지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광해.

산길을 내려오던 토우,
 광해의 비명 소리에 뒤를 돌아보고 하얗게 질린다.
 어느새 나타난 곡수가 광해 목에 칼을 대고 위협하고 있다.

토우 곡수야.... 왜 돌아왔어?
 곡수 정남이가 죽었소. 알았잖아. 금방 죽을 거.

정남의 호패를 토우에게 던져주는 곡수.
 토우가 받아서 본다.

토우 ...문어는 쫓냐?
 곡수 그러라고 날 남겨놓은 거 아니었소? 묻으면서 생각했지.
 이제 난 어디로 가지? 누구 얼굴이 딱 떠오르더군.
 토우 그분은 건들면 안 돼.
 곡수 왜? 지 애비조차 못 잡아먹어 안달이잖소?
 어차피 나를 괴롭히면 원수고, 나를 어여뻐 여기면 내 왕인 것이요.
 그러니 왜놈들에게 넘겨주고 뒤통박 팔자나 좀 고쳐야겠소.
 토우 칼 내려놔라. 니가 이러면 우린 다 죽어.
 혼자 살겠다고 전부 역적을 만들 셈이냐?
 곡수 (목소리 떨리며) 같이 갑시다, 형님도 그럼.
 왜놈들이라고 지금보다 더하겠소? 이놈의 나라는 지긋지긋하오.
 지옥도 이보단 나을 것이요!

서로 어둠 속에서 뚫어져라 바라보는 토우와 곡수.
 이글거리는 곡수의 눈빛과 토우의 곤혹스런 표정
 하지만 광해는 오히려 모든 걸 내려놓은 듯 담담한 표정.
 밝은 보름달과 별을 바라보며 쓸쓸히 읊조린다.

광해 낮에는 군주가 태양처럼 지배하고, 밤에는 양반 사대부들이
저 보름달처럼 지배하는 하늘이라면 별처럼 빛나야 하는 백성들이
실 자리는 어디란 말인가? (곡수를 보며) 날 죽여도 탓하지 않으나,
그래서 너의 울분이 풀린다면.

일그러지는 곡수의 얼굴.

광해 어서..... 곡수야....

불현 듯 자신의 이름이 불리우자 흔들리는 곡수의 눈동자.
어느 새 가까이 다가선 토우.
부들부들 떨리는 곡수의 칼날을 움켜잡는다.

토우 ...계속 걸어가는 수 밖에 없어. 지옥에선.

천천히 칼을 내리는 토우의 손에서 피가 흐른다.
이를 보며 서서히 힘이 풀리는 곡수.
마침내 칼을 떨구고, 결국 무릎을 꿇는다.
폭풍처럼 오열하는 곡수.
말없이 내려다 보는 토우와 광해.
그 때, 광해가 사라진 걸 알고 쫓아 올라온 양사와 대립군들.

양사 저하, 괜찮으십니까?

광해 ...아무 일도 없다. 꿈자리가 사나워 잠을 깼었다.

다시 일행들을 지나쳐 천천히 걸어 내려가는 광해.
그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토우.

51. 산길 몽타쥬 / 낮

-대낮이지만 배가 고프듯 달려드는 늑대 무리와 싸우는 일행들.
광해와 대신들을 가운데 몰아넣고 에워싼 채 정신없이 늑대를 쫓는 토우와 대립군들.
겹에 질려 도망치는 익위사 병사 한명을 늑대들이 물어뜯는다.
그틈에 일제히 다들 뛰어 도망간다. 뒤에서 엄호하며 따라오는 토우와 공달.
가장 뒤에서 늑대를 쫓는 곡수의 모습도 보인다.

-숲을 간신히 빠져나오자 계곡물이 불어 건너기 힘들다.
토우가 커다란 돌을 부여안고 물에 뛰어 들어가 건너편 나무에 줄을 맨다.
줄을 잡고 계곡을 건너는 일행들...순간 덕이가 미끄러져 급류에 떠내려간다.
토우가 계곡을 따라 전속력으로 앞질러 달려가 물에 뛰어 들어 기적적으로 구해온다.

-탈진한 채, 척박하고 험난한 산길을 내려오는 사람들.
다들 굶주려 온전한 정신이 아닌 것 같다.

52. 숲속 / 낮

산 아래로 내려와 숲속에 다다른 일행들...인기척에 숨을 죽인다. 피난민들이다.
역시 경계하는 피난민들... 우는 여자들도 있다.

왕춘 이봐 먹을 거 좀 있어?

왕춘이 칼을 든 채 다가가자 겁에 질린 피난민들,
토우가 말리자 저항하는 왕춘...손을 비틀어 제압하자 욕을 하며 대든다.

양사 듣거라...지닌 양식을 좀 나눠야겠다.

피난민1 어찌 생명줄 같은 것을 내놓으라 하십니까?

피난민2 아무리 양반님네지만 백주대낮에 이러심 안되지요!

양사, 참지 못하고 칼을 뽑아들어 사내의 목을 겨눈다.

토우 (쳐내며) 뭐하는 거요?

양사 비켜라. 세자 저하께서 사흘을 굶으셨다.

토우 저하께서도 원하시진 않을 거요...

양사 이제 네 놈이 호위대장이냐?

어찌 감히 저하와 저 미천한 것들 생사의 무게가 같단 말이냐.

그때, 왕춘이 보파리를 빼앗으려 달려들고, 난데없는 개싸움이 벌어진다.

이성을 잃은 양사, 피난민에게 칼을 휘두르려한다.

칼로 후려치며 맞서는 토우... 익위사 병사들도 가세해 난장판이 되는 찰나,

광해 그만! 그만들 두지 못할까? 당장 칼을 내려 놓아라 !!

난장판 속에 올려퍼지는 광해의 외침....하지만 멈추지 않자 직접 뛰어드는 광해.

덕이 등도 함께 싸움을 말리고...그제야 정신을 차리는 모두들, 동작을 멈춘다.

광해 (참담한) 조정이 못난 덕에 왜적들이 국토를 유린하여

백성들이 목숨을 잃고 터전을 떠나 도망 다니고 있다.....!

그런데 내가 저들의 양식까지 빼앗아 내 배고픔을 달래라는 말이냐!

너희는 나를 더 얼마나 ...얼마나 더 나를 욕보일 것이냐?

말리다가 칼에 스쳤는지 손에서 피가 흐르는 광해.

양사 (무릎꿇고 흐느끼며) 저하... 세자 저하... 죽여주소서....

세자라는 말에 다들 일제히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피난민들.
애를 업은 아나기 세자의 몰골에 왈칵 울음을 터뜨린다.
한숨을 내쉬는 토우와 대립군들, 그리고 양사와 병사들.
갈 곳 잃은 자들의 동병상련... 생각할수록 상황이 슬프고 기가 막히다.

53. 숲속 다른 곳 / 낮

야트막한 바위에 무쇠솥을 걸고 수수밥을 짓는 피난민들...
밥이 되자 솥단지를 가운데 두고 손으로 퍼먹는 일행들.
밥사발을 따로 받은 광해도, 미안한 표정으로 조심스레 밥을 먹어본다.
갓 지은 수수밥이 너무 맛있어 놀란다.
그제야 보고 있던 대신들도 허겁지겁 밥을 쑤서 넣는다.
조용한 숲속에는 오로지 배를 채우는 소리만 들린다.

밥을 다 먹고 어느새 한결 풀어진 분위기.
왕춘은 아까 칼을 들고 협박했던 피난민에게 사과를 한다.

피난민 1 그 힘들다는 대립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계속? 대단들려슈...
피난민 2 나도 대립질 몇 번 했지. 난 그래도 원님댁 자체분 대립 섰다오.
왕춘 대립이면 다 같은 대립이지 그것도 귀천을 따지나?
조승 왕춘이는 여기서도 밀리네?

와르르 웃는 사람들..
광해에게 다가가는 토우. 대나무통에서 뭔가를 따라 준다.

토우 여진족 놈들에게서 뺏은 술인데 좀 독하지만 마실만 합니다.
광해 고맙네. (조금 마시며) 잘 아는가? 여진을?
토우그들은 날로 강성해지고 있어 곧 중원을 놓고 명과 겨룰 것입니다.
비록 오랑캐지만 장자 적통 제도 따위가 없어, 능력 있는 아들이면
누구나 족장이 될 수 있는 게 그 이유 중 하나겠지요...

토우의 눈에 담긴 말 없는 격려를 읽는 광해.

광해 (끄덕이며) ...왜국의 왕 풍신수길이는 천한 마부 출신이라더군.
우리가 유가사상에만 너무 젖어 혈통만 따지고, 왜를 한낱 오랑캐라고
무시해서 이런 참극이 벌어진 것이다...전쟁은 결단코 일어나선 안 돼...
만약 내 왕이 된다면 맹세코 전쟁만은 다신 없도록 애쓸 것일세.

-시간 경과-

서로 작별인사를 하는 광해 일행과 피난민들.
광해가 떠나려는 피난민들의 손을 잡으며 부탁한다.

광해 조선의 분조가 강계에 있노라고 입소문을 많이 내주게나.
 혹시 가는 길에 의병이나 흩어진 관군들을 만나거든 꼭 전해주게.
피난민1 알겠사옵니다 저하!...온 함경도가 들썩이도록 외치고 다닙지요.
 곧 구름떼처럼 의병들이 모여들 것이옵니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광해.

광해 ...그리고, 오늘처럼 맛난 밥은 처음이었네. 평생 잊지 못할 것이네.

눈물을 글썽이는 아낙. 일제히 광해에게 절을 올리는 피난민들...
광해도 바라보다가 갑자기 맞절을 한다. 난감한 표정이 되는 대신들,
그런 광해를 신기한 듯 바라보는 대립군들... 토우의 얼굴에도 온기가 스친다.
멀리 사라지는 피난민들...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는 광해.

광해 이제 얼마나 남았는가?
토우 지척입니다. 내일이면 강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둘리보며) 밥값들을 해야지?
양사 ...대열을 정비하라.

양사와 토우도 눈빛으로 서로 사과를 한다.
다시 행렬을 추스르는 일행들, 무겁지만 힘을 내어 발걸음을 옮긴다.
여전히 힘들지만 끝이 거의 보이는 마음에 안도감이 감도는 일행들.

54. 언덕 / 낮

저 멀리 보이는 숲 지대를 바라보는 누군가의 시선.
숲속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광해 일행과 피난민들이 밥을 짓는 연기다.
언덕 위에서 바라보는 자객들.

자객1 여기서 더 가면 위험하오. 왜군들을 만날 수 있소.
 호위하는 놈들도 보통대기가 아닌 것 같고...이쯤에서 관두는 게...
두목 이미 었질러진 물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짓이 뭐지 몰라?
 무사하면 나중에 가만있을 것 같나? 윗놈들이 잡히면 우리도 다 끝이야.
자객2 난리가 터졌는데 하는 것들이라곤...망할.
두목 서두르라. 우린 시키는 대로 하면 그만이다.

10여 명의 자객들 무기를 챙겨 말을 타고 연기가 나는 방향으로 떠난다.

55. 평원 / 낮

숲을 나와 평원으로 들어선 일행들...

모두들 원기를 좀 회복한 듯, 여유가 있어 보인다.

공달 (왕춘 보며) 그런데 혼례를 올릴 처자가 누구냐?

조승 지깃눔 주제에 어찌다 노비년 하나 엮었겠지..

왕춘 (조승 보며) 형님, 절대로, 절대로 화내시면 안됩니다.

삼월이가 달거리가 멈추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형님.

조승 우리 삼월이가 달거리가 멈추었다니? 그게 무슨 이야기냐?

(가우똥) 그리고 그땀 걸 니가 어찌 아누?

토우와 공달은 이미 말 뜻을 알아채고 헛웃음 짓고 있다.

조승, 눈만 꺾먹거리며 보다가... 갑자기 벼락 맞은 듯.

조승 그러니깐 그 이야기는 네 놈이...우리 삼월이를 ...이런 처죽일 놈!

내가 이놈의 대립질 하는 이유가 번듯한 중인 사내 하나 골라

좋은 태 시집보내려는 건데...감히 근본도 없는 놈이 !

‘뼉’ 벼락처럼 날아오는 조승의 청룡도가 옆의 나무에 깊이 박힌다.

간신히 구르며 피하는 왕춘, 땀도 도망치고 그 뒤를 급히 쫓는 조승.

공달 따라가 봐야 하지 않겠는가!

토우 놈이. 이제 처남매제 사이인데 설마 죽이겠소 ?

공달 (웃음 번지며) 그도 그러 하네. 예유... 나도 우리 딸 소희 땀에

이 고생하는데 엄한 놈이 채가면 살 맛 안 날 거야.

멀리서 도망치는 왕춘의 비명소리가 길게 들려온다.

다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뛰쳐나오는 왕춘 보면, 화살이 허벅지에 박혀있다.

놀라는 토우와 일행들, 긴장하며 주위를 둘러보고...

그 때, 옆의 산등성 위에서 쏟아지는 화살세례...! 평원이라 무방비로 노출된 일행들.

광해 바로 옆 익위사 군병도, 김상궁도 화살에 맞는다. 비명을 지르는 덕이.

광해를 향해 집중적으로 날아오는 화살을 양사가 몇 번은 간신히 막아 내지만 역부족이다.

다시 화살이 날아오고... 더 이상은 칼로 막아 낼 도리가 없다.

양사, 그대로 몸을 돌려 광해를 감싸 안는다.

몸으로 인간 방패가 되는 양사, 계속 날아와 그의 등에 꽂히는 화살들...
양사, 울컥 피를 토하며 그대로 주저앉지만, 광해를 안은 깍지는 풀리지 않는다.
죽어가는 양사와 눈이 마주치는 광해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다.
순간 거짓말처럼 화살세례가 멈추어진다.

56. 산등성 / 낮

높은 곳에서 광해 일행이 있는 평원을 내려다보고 있는 자객 무리들.
화살을 무수히 날리다가 멈춰, 어딘가를 향한 그들의 시선.
멀리 숲 속 너머로 50명 쯤 되는 왜군 척후병 부대가 달려오고 있는 것이 보인다.
왜군은 곧 광해 일행을 발견할 상황이다. 낭패한 표정의 자객들...몸을 숨긴다.

57. 평원 / 낮

화살이 멈춘 틈을 타서 평원의 덩불에 몸을 숨긴 토우 일행.
자신을 들쳐 매고 뛰어온 토우를 간신히 바라보는 양사.

양사 (손짓하며) 여기... 내 품에...

토우, 양사의 옷깃을 조심스레 열어본다.
그 안에는 개어진 교통기가 있다. 온통 피투성이다.

양사 ...교통기라고 한다. 조선의 임금에 있다는 표식이다... 그... 깃발...
교통기를 지켜다오... 부탁한다... 내, 너에 대한 사죄의 마음과
고마움은 저 세상에라도 가져갈 것이다...

묵묵히 교통기를 내려다보는 토우.

양사 그 분은 좋은 임금이 되실 것이다... 그런 임금이 되셔야 한다... 그래야...
토우 이제 그만... 편히 쉬십시오...

간절한 표정의 양사, 미소를 짓는가 싶더니 눈을 감는다...
그 때, 왜군들이 코앞에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토우.
앞에는 자객, 옆에는 왜군들에 둘러싸인 사면초가의 순간...

결심한 듯, 평원으로 혼자 뛰어가는 토우.
교통기를 창에 꽂고는 힘껏 함성을 지르며 자객들이 있는 산등성을 향해 뛰어간다.
깃발을 본 왜군들, 토우를 향해 일제히 방향을 튼다.

58. 산등성 / 낮

토우가 자신들에게 달려오며 왜군들을 유인해 오는 걸 깨달은 자객들.

두목 저런 미친놈....

토우를 발견한 왜군 부대가 쫓아온다.
어쩔 수 없이 도망치기 시작하는 자객들. 왜병들이 조총을 사격한다.
산꼭대기로 도망치던 자객들 대부분 총을 맞고 쓰러진다.
살아남은 자들은 토우의 창에 쓰러진다.
말을 타고 순식간에 산등성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왜군 병사들.
토우 또한 이들에게 쫓기는데...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는 왜병들.
결국 토우도 잡히거나 죽기 일보 직전...
산 꼭대기로 뛰어올라가 깎아지른 절벽에 서는 토우.
밑을 내려보다가 결심한 듯 창을 들고 뛰어내린다.
교룡기에 휘감겨 물에 빠지는 토우.

59. 물 속 / 낮

강바닥에 내려 쫓히는 교룡기.
뒤이어 토우도 물에 잠기고, 조총 탄환이 물속으로 뚫고 들어온다.
그대로 가라앉다가 갑자기 벌떡 숨을 내쉬며 정신을 차리는 토우.
뭔가를 발견한 듯 눈을 크게 뜬다.
물 속에서 너울거리는 깃발에 그려진 용 두 마리...살아 있는 듯 하다.

60. 평원 / 낮

왜군이 물러간 평원에 석양이 지고 있다.
숲 앞에서 김상궁의 시신을 안고 울고 있는 덕이.
정참판과 대신1,2를 포함해 생존자는 십여 명에 불과하다.
대립군들도 토우의 생사가 궁금해 미치겠는 표정.

양사의 시신 앞에서 눈물 흘리는 광해.
뭔가 떠오른 듯 양사의 허리춤에서 피묻은 호패를 떼어내 소중히 바라본다.
갑자기 토우 생각이 나며 걱정에 휩싸인다. 살아 있는 것일까.

그 때, 곡수가 손가락으로 평원 저쪽을 가리킨다.
천천히 일어나가던 광해,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며 달려간다.

저 멀리 손에 교통기를 들고 걸어오는 토우의 모습이 보인다.
대립군들도 뛰어간다. 살아 돌아온 토우와 만나 기뻐하는 일행들.

광해 천만 다행일세. 무사히 돌아와서...
토우용이 구해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갸우뚱하는 광해와 일행들. 미소를 짓는 토우.

61. 침엽수림 / 낮

뿔뿔한 숲을 구불구불 지나오는 광해와 일행들...
지옥에서 빠져나온 듯 모두 말이 없다.
앞선 대립군들이 오솔길을 돌아 탁 트인 곳이 나온다.
마침내 저 멀리 보이는 강계읍성.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도착한 대립군들 얼굴에 드러나는 후련한 미소.
하지만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기에 착잡함도 스쳐간다.
특히 광해에겐 알 수 없는 막막함이 느껴진다.

62. 강계 마을 / 낮

성문에 들어서서는 광해 일행.
그런데 성문은 문이 뜯겨져 남아 있질 않고, 성벽도 곳곳이 허물어진 상태다.
잔뜩 긴장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광해 일행.

63. 강계관아 내부 / 낮

황폐한 관아에 들어서서는 광해 일행... 다들 할 말을 잇는다.
창고는 텅 비어 있다. 불에 타다만 흔적도 역력하다.
무기들도 먼지가 쌓인 채 아무렇게나 굴러다니고 있다.
벽에 “왕이 의주로 도망갔으니 얼른 붙잡아 가시오”란 내용의 벽서가 붙어있다.
목숨을 건 험한 원행 끝에 찾아온 허무감이 그들을 휩싼다.
그러나 광해의 허탈함은 비교할 수 없다.

정참판 (혀를 차며) 다 태우고 도망가버렸구만...죽일놈들.
대신1 죽을 고생해 왔는데... 이게 무슨... 어떻게 하면 좋소?

지켜보는 토우와 대립군들도 다리가 풀린다.

팔자를 고칠 기회를 기대했기에 더더욱 표정엔 실망이 가득하다.

왕춘 완전 답 쫓던 게 됐네....

그들을 외면하듯 고개를 돌리는 정참판.

64. 강계관아 앞 / 낮

답답한 표정으로 밖에 나온 토우와 대립군들.

어느 새, 백성들이 삼삼오오 나와서 걱정스런 표정으로 거닌다.

모두 겁에 질려있다. 노인과 아이들이 행한 눈으로 바라보는 을씨년한 풍경...

이곳에서 뭔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토우의 어두운 표정.

그 때, 저 뒤에서 누군가 토우를 부른다. 바라보면 쇠돌이다...!

놀라는 대립군들... 믿기지 않는 표정.

쇠돌 (원망하듯) 왜 이리 늦게 오셨어요...

머칠을 붉은 듯 거지꼴이 된 쇠돌이, 폭 쓰러진다.

65. 강계 관아 내부 방 / 밤

걱정스럽게 쇠돌을 지켜보는 대립군들...옆에서 덕이가 미음을 먹인다.

간신히 의식이 돌아오며 힘겹게 눈을 뜨는 쇠돌.

토우 어찌 된 일이나. 가족들은? 임금님을 따라 안 갔어?

쇠돌 가다가... 다리를 불태워버렸어요.

토우 누가? 왜?

쇠돌 임금님 쪽에서....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피난민들 땀에 자꾸 늦어지니까요.

탄식을 내뿜는 일행들.

토우 그래서 다들 지금 어디 있냐.

쇠돌 마을 뒷산 동굴로 다시 돌아가 숨었어요. 왜군들은 다행히 아직....

토우 그 소식을 전하러 여기까지 온 것이냐?

쇠돌 네. (울먹이며) 그리고 저도 아버지 역할을 마저 해야하잖아요.

다신 도망치지 않겠다고.. 결심 했거든요.

토우 그래 애썼다. 이제 집에 가자...

공달 쇠돌아...우리 안사람 하고 소회는 괜찮지? 다들 무사한 거지?

쇠들그때 불타는 다리 위에서 강물에 떨어졌는데.. 아주머님은 건졌는데...
(울먹인다) 그만 소화가....

눈물을 글썽이는 사람들... 주먹이 부서져라 바닥을 내려치는 공달.

공달 이런 개 같은 새끼들! 이놈의 나라는 망해버려야 해!
썩어빠진 조정을 싸그리 갈아엎어버려야 한다고!

공달, 말릴 세도 없이, 고향을 내지르며 문을 박차고 나간다.
다른 대립군들도 정이 떨어진 얼굴들로 짐을 꾸리기 시작한다.

66. 강계관아 내부 집무실 / 낮

어두운 표정으로 서 있는 광해와 그 옆의 대신들. 논쟁 중이다.

광해 주상전하께서 내리신 어명을 어찌 어긴단 말입니까.
이는 저에겐 크나 큰 불효이고 신들에겐 불충 아니요?
정참판 저하, 지금 분조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관병들도 다 도망갔는데,
만약 왜놈들이 들이닥치기라도 하면...
광해 (힘없이) 의병들을 오라 했으니 기다려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근처에 있을 신철 장군을 만나 함께 후일을 도모해야지요.
정참판 천한 것들에게 던진 말이 어디 전해지거나 하겠습니까?
신철 장군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니 주상께 파발을 올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 때, 작별을 고하려는 토우와 대립군들이 들어선다.
그들이 떠나려고 왔다는 것을 눈치 채는 광해. 마음이 더 흔들린다.

토우 저희는 이만 떠나야겠습니다.
정참판 (인상을 찌푸리며) 아직은 안 되네. 좀 더 기다리게.
여길 빠져나갈 것인데 보다시피 호위 병력이 없으니...
왕춘 (불끈) 아니 기껏 목숨 바쳐 왔는데 또 어디로...
무과 시험은 안봅니까 나리?
조승 조용히 해라 이놈아. 딱 보면 모르냐? 얼른 가거나 하자.
안 죽은 것만도 다행이다.

묵묵히 듣던 광해가 정참판에게 말한다.

광해 보내시오. 저들은 약조한 것을 다 하지 않았소?
못 지킨 것은 오히려 우리요.

토우괜찮으시겠습니까? 저하.

광해 안 무섭냐는 뜻인가?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붓을 잡더니 화선지에 뭔가를 쓰는 광해.
붓을 놀리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광해 어제, 꿈을 꾸었는데, 들판 가운데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었네.
그 많은 가지 위에 사람들이 셀 수 없이 올라앉아 있었지.
이윽고 거센 광풍이 불어와 나무가 뿌리째 뽑히면서 쓰러지자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어. 그들이 도와달라고 나를 불렀지만
두려워 가까이 갈 수가 없었네.
나를 부르는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아직 귓전에 전해...

멘 위에는 커다랗게 아래의 문구가 써있다.

“ 一人投命 足懼千夫 ” 일인투명 족구천부

대부분 까막눈인 대립군들은 눈만 꿈뻑거리고,
같은 내용을 몇 장 쓴 후, 각각 국새를 찍고 토우에게 주는 광해.

광해 조선의 분조는 항복하지 않고 싸울 것이라는 글일세.
돌아가는 길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붙여주게.
의병들이 스스로 모일 수 있게끔.

토우 (보며) 한 사람이 목숨을 던지면 천 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광해 병법서 오자(吳子)에 나오는 말일세. 조선에 지금 필요한 말이지...

종이를 받아드는 토우, 가볍게 한숨을 내뿜는다.
어찌해야할 지 토우의 눈치를 보는 대립군들.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교룡기를 품에서 꺼내 광해에게 가져가는 토우.

토우 양사 어른이 눈을 감기 전에 소인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소인이 감당할 만한 것은 아닌 듯 하옵니다.

67. 강계 관아 마당 / 새벽

떠날 준비를 하는 대립군들.
안기척에 돌아보면 덕이가 먹을 것들을 싸서 와 있다. 말도 한 마리 가져왔다.
일행들이 짐을 싸는 동안 잠시 덕이와 얘기를 하는 토우.

덕이 꼭 가셔야만 하는 건 가요? 전부 다...

토우 그렇소. 약조한 기간도 됐고, 가족들마저 위험해졌소.
 여기 남아 있을 거요, 계속?
 덕이 (작은 주머니를 보이며) 제 마지막 보호자입니다. 입에 털어넣을 거예요.
 왜놈들을 만나면 마지막에...그럼 깨끗이 저 세상으로 갈 수 있지요.
 그런데 코를 베어가면 어찌지요?
 토우 ...그럴 일은 없을 거요. 절대.
 덕이 뭐 죽은 다음인데 어떻겠어요. 어차피 썩어 없어질 몸.
 (토우 보며) 계셔서 참 든든했습니다. 제 목숨도 구해주시고...
 마음 속에 언제까지나 간직하겠습니다.

꾸벅 인사하는 덕이를 찬찬히 바라보는 토우.

68. 강계 관아 / 이른 아침

대립군 일행, 착잡한 표정으로 강계 관아를 막 벗어나고 있다.

조승 공달이 이 사람은 대체 어디 간 거야?
 곡수 열 받아 먼저 떠난 게 아닐까요?

덕이가 홀로 손을 흔들고 있다. 마지막을 예감하는 그녀의 슬픈 눈빛...
 끝내 광해는 보이지 않는다.

69. 강계 관아 집무실 / 이른 아침

탁자 위엔 피 묻은 교통기가 펼쳐져 있고, 희미한 미명 속의 광해는 상념에 잠겨 있다.

70. 강계 외곽 / 아침

한적한 오솔길이 길게 펼쳐져 있다.
 걷고 있는 대립군들의 행렬...무거운 침묵만이 감돈다.
 그때, 긴장한 토우가 멈추라고 신호를 보낸다.
 야산 밑의 평원을 보면 이동 중인 왜군 부대가 보인다. 500명은 족히 넘어 보인다.

왕춘 천만다행이네.... 벌써 왜군들이 이렇게 가까이 왔어.
 조승 필시 강계로 진군하는 것이 분명해.
 쇠돌 (걱정스런) 알려라도 줘야하지 않나요. 어서 도망치라고...
 조승 무슨 소리야... 지금 어떻게, 가던 길 어여 가세.

그냥 못 본 척, 그냥 행군을 계속하는 토우와 일행들,
잠시 후, 걸음을 멈추는 토우.... 깊은 한숨을 토해낸다.

토우 (돌아서며) ...지름길로 가면 아직 늦지 않을 거야.

토우의 결정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일행들.
말에 실었던 무기를 내리는 토우에게 다가가 말린다.

조승 이봐. 토우...자네 맘은 알겠네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토우 가시오...모두들. 이건 나 혼자 남으면 돼.
왕춘 (막아서며) 형님... 식솔들 생각도 해야죠. 어머니는요...? 향이는...!!

왕춘과 일행이 토우를 잡아세우자, 뿌리치며 외치는 토우.

토우 지금 옆에 있다고, 식솔들한테 해줄 게 있을까? 밥이나 축내겠지.
하지만 저기 남겨둔 사람들은 우리가 버려두고 가면 다 죽어...!
그리고, 세자도! (목소리 떨린다) 혹시 모르잖아...성군이 될지도.

모두들 말이 없다. 순간, 짐목을 깨고 발악하듯 소리를 지르는 왕춘.

왕춘 관심 없소! 그런다고 우리한테 뭘 먹고물이 떨어지는데?
죽을 고생하며 태려다 뺐건만 결국 돌아온 건 빈 손이잖소!
조승 어차피 누가 되든 나랏님들이 우릴 거둬 먹여나 주겠나? 어렵없지.
내 한 몸만 생각하며 각자도생 하는 수 밖에 없어! 이놈의 나라에선!

갑자기 동료들에게 칼을 겨누는 토우.
놀라는 조승과 왕춘, 그리고 곡수, 골루타 등.

토우 대립은 끝났어. 다들 돌아가.

토우의 단호한 눈빛. 오던 길로 돌아가는 토우.
이를 보며 괴로운 표정으로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는 일행들.
뚫어져라 지켜보던 곡수, 결심한 듯 토우를 따라간다.

71. 강계 관아 앞 / 낮

먼지를 날리며 도착하는 파발, 강계 관아 앞에 와서 멈춘다.

72. 강계 관아 집무실 / 낮

전령을 앞둔 광해와 대신들, 긴장된 표정.

광해 주상전하께서는 그렇게만 전하라 하시던가?
전령 그렇사옵니다. 명나라의 참전이 드디어 어렵게 성사된 것이니
명의 장수와 군사들을 각별히 살피고 도우라 하셨습니다.
광해 이곳 강계는 어찌고 다시 떠나 먼 평안도 땅으로 가라시는 건가?
전령 거기에 대해선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좌우간 명의 부대보다
하루라도 먼저 가서 기다리라 하셨으니 서두르셔야 할 것입니다.
정참판 (화색이 돌며) 잘 되었습니다! 어명이니 더는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1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대신 2 게다가 명나라가 드디어 참전한다니... 하늘이 도우셨소!
광해 이곳 사람들은요? 이들은 우리가 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광해의 흔들리는 눈빛....그러나 대신들은 이미 마음을 결정했다.

정참판 편지의 임해군 소식 못 들으셨습니까? 함경도는 반역자들의 땅입니다.
역도들에게 잡혀가기 전에 빨리 벗어나셔야만 합니다.

73. 강계 읍성 어귀 / 낮

어느 새 마을 입구에 백성들이 삼삼오오 무리지어 모여 있다.
그들은 불안한 얼굴로 광해 일행이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대신1 (속삭이며) 설마 또 영변에서처럼 그 난리나는 건 아니겠지?
대신2 제발 조용히 가자...이번엔.

두려운 대신들, 정참판과 전령이 칼을 뽑아들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
하지만 백성들은 말없이 바라만 볼 뿐 저항하진 않는다.
순순히 길을 열어주는, 체념한 듯 찢기 없는 그들의 얼굴이 더욱 눈에 밟히는 광해.

광해 곧 왕세자가 도망갔다고 또 벽서가 붙겠구나...
역시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로다. 그 피가 어디 가겠는가.

광해의 쓸쓸한 혼잣말을 뒤로하고 걸음을 재촉하는 일행들.
그 때 저 앞 산속에서 달려 내려오는 토우와 곡수....깜짝 놀라는 광해.

토우 (숨을 몰아쉬며) 저하... 지금 왜군들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광해뭐라고? 왜군들이 !

놀라는 광해와 대신들... 서로 곤혹스럽게 바라보는 대신들.

정참판 저하... 우린 어명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순 없습니다.

광해 싸우진 못하더라도 피신이라도 빨리 시켜야 할 것 아닌가...

대신1 어디로 말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여길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정참판 (초조한) 모르십니까? 저하께선 아직 정식 세자가 아니옵니다!

명의 허락이 있어야만 비로소 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장자인 임해군도 있는데, 세자 인정을 받으려면 명의 환심을 사는 게 급선무입니다.

차남인 저하를 옹립하느라 목숨을 건 저희 신료들 생각도 하소서...!

정참판의 노골적인 겁박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광해.

하지만 백성들을 보며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듯... 눈물이 고인다.

그런 광해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다가오는 토우.

토우 저하....백성들을 피신시킬 곳은 있습니다!

광해 어딘가?

토우 옆에 작은 산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 가시렵니까?

광해 (바라보며) 가능하겠는가?

토우 ...게다가, 산성 뒤에는 절벽이지요.

아주 무서울 겁니다....등지고 서면.

토우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광해.

마침내 결심의 빛이 스쳐간다. 떨리는 목소리로 전령에게 소리치며,

광해 의주에 돌아가서 전해라. 왕세자의 분조는 당장 퇴각하지 않고 이곳에서 주어진 소임을 마친 후 가겠다고!

자기 백성을 스스로 구한 후에야, 명나라의 도움을 청하는 게 하늘의 이치이며 몇몇할 것 같다고...

74. 강계산성 성문앞 / 낮

읍성 옆 가파른 언덕위에 위치한 작은 강계 산성.

산성 밑에서 양치는 개처럼 백성들을 몰아 올려 보내는 토우와 광해 일행.

목소리 빨리 다들 올라가시오! 왜군들이 몰려오고 있소!!!

광해, 마을 다른 쪽으로 달려가고 놀란 토우와 일행들이 급히 뒤를 따른다.

광해 (멈추어 서서) 나를 따르지 마라.

홀어져서 한 명이라도 더 성 안으로 데리고 오도록 해라.

75. 강계읍 어귀 / 낮

강계읍성 초입을 들어서고 있는 500여 명의 왜군부대.
전투에는 가토의 명을 받고 회령에서 넘어온 고바야시와 부관이 있다.

고바야시 지금까지 전투가 너무 싱거워 공을 세울 길이 없었다.
조선의 왕세자를 잡는다면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고향집에도 빨리 갈 수 있겠지...

황급히 달려온 통역병의 얘기를 듣고, 고바야시에게 전해주는 부관.

부관 지금 왕세자가 사람들을 피신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고바야시 직접...? 누가 얼굴을 아는가?
부관 이 자가 잘 안다고 합니다.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바야시 (크게 웃으며) 거봐라. 조선인이 스스로 잡아 바친다고 했잖나.
당장 세자를 잡아들여라!

통역병 옆에 무표정하게 서 있는 한 조선인.... 그는 공달이다.

76. 강계 산성 성문 앞 / 낮

마을 이곳저곳에서 조총 소리... 다급히 성 안으로 뛰어드는 백성들.
이때 아이를 안은 광해가 달려오고, 뒤로 쫓아오는 왜군들.
광해는 아이를 안고 성문으로 향하지만, 왜군들이 조총을 쏘자 발을 헛디더 쓰러진다.
성 안에서 지켜보는 토우 일행. 다급히 화살을 쏘며 왜군을 쫓지만 중과부적.

위기의 순간, 어디선가 튀어나온 무리들이 왜군들을 뭉둥이로, 창으로 제압한다.
공격의 주인공들은 바로 오십여 명의 승병들!
이들을 이끌고 함께 달려온 왕춘과 조승, 쇠들, 골루타 등도 보인다.
광해와 함께 성으로 들어오는 무리들 속의 노승.

노승 왕세자님, 저희가 때를 잘 맞추었나요?
광해 (아직도 얼떨떨하다)
노승 그새 이 땡중을 잊으셨소?
열흘 전 산속에서 다시 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하.
광해 스님!

토우와 다시 만나 반가워하는 대립군들.

조승 마침 스님들을 만나 같이 돌아왔네.
 토우 거참, 말들을 이리 안 들어서야 어디 대장 노릇 하겠나.
 왕춘 형님만 벼슬 하면 배 아파 뉘지지 않겠소.

서로 웃으며 바라보는 토우와 대립군들.

77. 강계산성 밖 / 낮

산성 밑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왜군들이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고바야시와 부관이 산성 위를 바라보고 있다.

부관 본진에 가서 병력을 불러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바야시 그럴 필요는 없다. 보아하니 군병은 별로 없는 듯 하다.
 오늘은 병력들을 쉬게 하고 내일 아침 공격을 시작하자....
 (웃으며) 어젯밤 꿈자리가 좋더니!

78. 강계산성 망루 / 밤

밤이 된 산성 내부엔 대낮처럼 햇불이 피워져 있다.
 조승과 왕춘이 병기를 모아 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
 노인과 부녀자들도 돌을 모아 성 망루 위로 옮기고 있다.
 그 때 성 밖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절박한 목소리.

공달 왕세자를 내보내시오! 그러면 이들은 즉시 이곳을 떠날 거요!!
 다시 한 번 말하니 당장 왕세자는 나오시오!!!
 왕세자가 안 나오면 포로들을 한 명씩 죽인다고 하오...

‘저기 공달이 아냐?’ 대립군들 아연실색 충격에 빠진다.
 공달 옆에는 붙잡힌 읍성 사람들이 몇 명 보인다.

광해 대체 왜....? 저 자가 !
 토우 서얼 출신이라 지닌 한이 컸지요. 과거도 못 치고...
 천한 대립질을 하기엔 아까운 친구였습니다.
 세자 저하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을 겁니다.

남자 한 명을 끌고 나오는 왜병....칼로 목을 벤다. 피를 뿜으며 쓰러지는 남자.
 이를 지켜보는 백성들이 탄식한다. 지켜보는 광해도 고통스럽긴 마찬가지...

공달 어서 세자는 나오시오! 불필요한 희생을 막아야 않겠소?
아버지와 무능한 조정이 나라꼴을 이리 만든 것에 책임을 지시오!
설마 왕자를 죽이진 않을 것이니 냉큼 나오시오!

뒤이어 한 여자가 끌려나온다. 자세히 보니 덕이다 ! 깜짝 놀라는 토우와 광해.
덕이가 성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두 사람.
덕이의 저고리를 벗겨 때리고 능욕하는 왜병들.
그녀가 손에 든 작은 주머니에서 독약을 먹고 자결하려 하지만 이내 뺏겨버린다.
이를 옆에서 직접 바라보는 공달도 가슴이 찢어진다.
더 이상 차마 보고 있을 수 없는 광해, 토우에게 급히 달려간다.

광해 나가겠네...저들의 목표는 날세.
토우 안 됩니다.
광해 (눈물) 이렇게 눈 뜨고 바라만 봐야 하느냐?
설마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겠는가.

밖을 쳐다보는 토우의 마음도 저런다.
광해를 발견하곤, 흐트러진 머리로 성 안을 향해 외치는 덕이.

덕이 (안간힘을 다해) 저하, 절대로 나오시면 아니됩니다!
저하는 맘이 다정하고 착하시니 얼마나 힘들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안에 그대로 계셔야 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꼭 무사하셔서 성군이 되셔야 해요!!

조용히 하라고 때리고 짓밟는 왜병들....이를 보며 괴로워하는 광해와 사람들.
왜병들이 욕을 보이자 손을 물고 격렬히 저항하는 덕이,
순간적으로 잠시 손아귀에서 벗어나자 산성을 향해 힘껏 달려간다.
하지만 뒤에서 쫓아오는 대여섯 명의 왜병들... 곧 잡힐 듯 하다.

보다 못한 토우가 활에 화살을 메겨 겨눈다.
활을 겨눈 토우와 눈이 마주치자, 눈빛으로 재촉하는 덕이.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댄다... 어서 쏘라는 듯 또는 고맙게 답아가겠다는 듯.

화가 나서 뒤에서 쫓아오며 칼로 찌르려는 왜병들...
덕이가 사정권에 들어오자, 눈을 질끈 감고, 활시위를 놓는 토우.
덕이의 심장에 날아가 정확히 박히는 화살.
풀썩 쓰러지며 숨이 끊기는 덕이.

광해 (눈물 글썽이며) 덕아.....!!

분노하는 대립군들과 성안의 사람들....침통하게 불경을 외는 노승.
토우, 무거운 표정으로 광해에게,

토우 저는 전쟁을 잘 압니다... 설사 투항해도 놈들은 야녀자를 겁간하고,
공을 세우려 백성들의 코를 베어가기 위해 서로 다툰 것입니다..
행복한 자들에게 자비란 없습니다. 성 뒤에 절벽이 왜 있겠습니까.

토우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광해, 다시 망루 아래로 내려간다.

79. 강계산성 안 / 밤

광해가 내려오자 사람들이 길을 터준다.
광해 앞으로 한 노인이 망금 전 광해가 구한 여자아이를 데려온다.
광해, 무릎을 꿇어 눈을 맞추고 쓰다듬어준다.

광해 너무 무서워하지 말거라. 아무 일 없을테니.

미소짓는 아이를 꼭 끌어안은 광해. 마치 자신에게 하는 다짐 같다.
그 때, 정참판과 한 사람이 달려온다.

정참판 저하. 백성들은 일단 피신시켰으니...오늘 밤 야음을 틈타
 빠져나가시지요...아래 강가에 나룻배가 한척 있다고 하옵니다.
광해 (무심하게) 병기 중에 활이 있는가... 나는 활을 주게.

무기를 나눠주던 조승과 왕춘, 광해가 다가가 손을 내밀자 놀라 바라만 본다.

광해 무엇하느냐. 지금 내 말이 안 들리느냐?

광해의 재촉에 얼른 활과 화살통을 건네는 조승.
광해, 화살을 받아들고 돌아서며 시위를 당겨본다.

광해 궁궐에선 몇 번 시위를 당겨봤소...사람을 향해 쏘 본적은 없지만.

화살을 먹여 날리는 광해.
활시위를 떠나 제법 날아가 꺾히는 화살.
작게 탄성을 지르며 눈을 깜빡이는 주위 사람들.

정참판 (난처한) 전하 어찌 이러십니까? 할 만큼 하셨습니다.
 어명을 어기면 분조는 끝입니다! 대를 위해 소를 버리셔야지요!
 군주가 될 자가 사사로운 정에 연연하면 대사를 그르칩니다!

광해어떤 책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까? 어떤 책에 백성보다 더 큰 게 있다고 쓰여 있습니까!

말문이 막히는 정참판, 얼굴이 붉어진다.
광해가 들고 있는 활을 뺏는 정참판. 이성을 잃었다.
순간, 허리에 찬 칼을 꺼내 정참판에게 겨누는 광해.

광해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것이 군주라 하였소...?

사색이 되는 정참판, 활을 떨군다.
옆에 있던 곡수가 주워서 광해에게 준다.
보다 못한 토우가 나신다.

토우 저하, 사람은 각자 주어진 본분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것만으로도 힘이 되오니, 싸움은 저희에게 맡기시고...
광해 아닐세. 나 또한 그대들과 다를 바 없네.
알잖나. 나도 누군가를 대신해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걸.
그러니 우린 모두 다 똑같은 신세지...
하지만 하늘이 준 목숨은 하나뿐이니 누가 누구를 대신할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남 대신 와 있는 사람은 이제 없네.
나 또한 그러하다네.

광해를 바라보는 토우의 흔들리는 눈빛.
숨죽인 채 광해를 둘러싼 대립군들과 백성들.

광해 이제 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싸워보세..!

토우의 무표정한 얼굴에 잠시 걱정의 감정이 스쳐간다.
광해에게 큰 절을 올린 후,
계단 위에 올라가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외치는 토우.

토우 왕세자께선 여기 끝까지 남아 우리와 생사를 함께 하기로 하셨소!
임금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 때문에도 아니오...
바로 세자 저하, 당신의 목숨을 스스로 구하기 위해서요!

토우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사람들,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한다.

토우 나라가, 하늘이 아무리 우릴 버려도, 우리가 스스로를 버릴 순 없소 !
오늘은 죽어도 나를 위해 죽고, 살더라도 나를 위해 살아남시다 !!

함성을 지르는 모두들....조승, 왕춘도 무기를 번쩍 든다.

노승과 승병들도 크게 함장을 올린다.
높이 성루에 걸리는 교룡기가 햇불 아래 휘날린다.
곳곳에 찢자국이 얼룩져 있고, 구멍이 뚫려있는 교룡기,
왕이 이곳에 있다는 걸 선포하듯 거칠게 나무꾼다.

80. 강계산성 / 아침

진격하는 왜군 선발대가 보이기 시작한다.
망루에 있던 승병들이 창을 날리기 시작한다.
왜군 사수들이 조총 사격을 개시한다.
몇몇 승병들이 쓰러진다. 성곽에 붙어 바라보는 대립군들.
어느새 광해도 활을 들고 옆에 자릴 잡는다.

토우 저하, 위험합니다.
광해 괜찮다. 이차피 조선에 왕자는 많아. 어명도 이미 어겼잖나.
 누가 함경도는 반역의 땅이라더군..

토우도 더는 말할 수 없다.
곧이어, 벌어지는 격렬한 전투.... ! 광해의 활에 맞아 쓰러지는 왜병들...
잠시 후, 전열을 재정비한 왜군들이 삼열 종대로 연속 사격에 돌입한다.
빨라진 사격 속도에 쓰러지는 사람들...성안에 시신과 부상병들이 쌓여간다.
활을 쏘던 노승, 옆구리에 총을 맞고 주저앉는다.
승병들이 그를 부축하다 그들도 총을 맞는다.
옆에 있던 광해가 기어가 노승을 붙잡는다.

광해 스님... 정신 차리세요, 스님...!

81. 강계산성 내부 아래 / 낮

광해, 노승을 업고 아래로 내려간다.
비틀거리면서도 끝까지 노승을 업고서 안전한 곳에 뉘어놓는 광해.
아녀자 둘이 달려와 돌봐준다. 하지만 가망은 없다.

노승 (미소) 세자 저하께 업혀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그려...
광해 조금만 건디세요 스님...
노승 저하... 그게 백성 한 사람의 무게입니다.
 그것만 기억해도 성군이 되실 것입니다...

노승, 눈을 감는다. 눈물을 떨구는 광해.

82. 강계산성 앞 / 낮

싸움은 격렬해지고, 왜군들도 피해가 크다.

부관 대장님, 일단 철수를 하시지요?

관군은 아닌데 저항이 예상보다 대단합니다.

고바야시 (화내며) 왕세자가 이겼다는 소문이 나면 전세가 변할 수 있다.

내일까지 무조건 함락해라. 그리고 왕세자 빼고 다 참살해버려!

적진에서 착잡하게 성을 바라보는 공달.

덕이가 떨어뜨린 독약 주머니를 들고 멍하니 바라본다.

83. 산성 주변 / 낮

해질녘, 조용히 소리죽여 언덕을 넘는 한 무리의 농민들...다들 병장기를 들고 있다.

광해가 입소문을 내달라고 부탁한 남자 피란민들 몇 명도 보인다.

왜군 뒤쪽 바위산에 자리를 잡은 의병들....양측의 전투가 흰히 보인다.

의병 1 어쩌면 좋소? 뒤에서 치는 게 어떻소?

의병장 정면 대결은 무리요. 우선 성 안의 상황을 파악해봐야 하지 않겠소?

84. 강계 산성 안 / 밤

병력은 다시 반으로 줄었다.

부상자를 포함해도 싸울 만한 장정은 채 삼십이 안 된다.

아녀자와 아이들...모두 겁에 질려 있다.

막막한 승병들과 대립군들... 토우도 방법이 없다.

밖에선 다시 공달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린다.

공달 잘 들으시오! 내일 성을 점령하면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는다 하오!!

그 전에 왕세자는 스스로 나오시오!! 백성들을 다 죽이고 싶은가!!

토우야! 조승형님! 왕춘야! 곡수야! 나와라! (울먹인다) 이긴 개죽음이다!

우리가 뭐라고 이런 빌어먹을 나라에 목숨을 바친다는 거냐!

우리가 죽으면 우리 식솔들은 다 굶어죽어!

대립군들 차마 듣지 못한다. 왕춘, 허공에다 욕지거리를 해댄다.

고문당하는 심정의 모두들...보다 못한 토우가 공달을 향해 외친다.

토우 이보게! 우린 절대 죽지 않아! 여기서 꼭 살아 나갈 걸세...!
자네를 미워하지도 않아! 하지만 왕세자님은 못 내보내네!

마침내 무릎을 꿇고 우는 공달.

공달 나도 이려고 싶진 않았어.... 미안하네...
하지만 조선은 이미 망했어....다 끝났다구....

통곡하는 공달을 끌고 가는 왜병들....내일의 참극을 향해 흐르는 무심한 시간.
절벽에서 뛰어내려 자결하는 여자도 있다. 이를 보며 불안에 떠는 사람들...

광해 (한숨)...어쩌면 좋겠나. 큰 소리는 쳤네만.
토우 한 사람이 목숨을 던지면 천명을 두렵게 한다고 하셨지요?
그 말을 한번 믿어봐야지요.
광해 의병들이 올까 과연? 어쨌든 저들이 날 죽이지는 않을 것인데...
나가서 백성들의 안위를 최대한 빌어보겠네.
토우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광해 명의 원군이 왔다고 하니....희망을 가져야지.
(쓸쓸한 미소) 여까지가 내 운명인가 보네.

토우도 이제 더는 말릴 수 없다.

광해, 마침내 단상에 올라 백성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한다.

광해 여러분....들으시오! 더 이상 이 싸움을 끄는 것은 무모하오.
내가 나가기로 했으니 이제 그만들 평정을 찾으시게.

밤하늘에 별들이 가득하다. 수많은 백성들처럼...

별을 보다가 갑자기 울적하며 우는 광해.

광해 미안하네.... 너무 미안하네.... 용서들 해주게.

의병들과 승병들,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광해, 망루를 내려가 성문 쪽으로 향한다.

그런데 그때, 뒤쪽에서 비명 소리가 들린다.

백성들이 앉아 있던 자리 뒤편에, 뭔가 시커먼 게 불쑥 올라온다.

왕춘 너..... 오랑캐! 이 자식, 어디 갔었어? 도망간 줄 알았잖아!
골루타 (기어나오며) 도망은 개뿔... 귀한 손님 모셔왔다, 자식아.

골루타와 함께 연이어 함께 기어나오는 의병 한 명.

85. 강계 산성 다른 곳 / 밤

주민을 앞에 두고 빙 둘러선 성 안의 모두들.
광해도 함께 서서 긴장한 채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의병 피란민들이 왕세자님께서 여기 계시단 말씀을 전했습니다.
 (밖을 가리키며) 지금 회천에서 꾸린 의병 1백 여 명이 와 있습니다요.

광해, 감격스러워 어쩔 줄 모른다.
순간, 함성을 지르는 사람들. 승병대장이 얼른 말린다.
토우와 대립군들도 서로 바라보며 화색이 돌고...

토우 구멍 크기가 얼마나 되요?
의병 아주 작습죠. 다 같이 나가면 발각될 게 분명합니다.

토우, 광해를 본다. 혼자라도 나가라는 눈빛...
정참판도 권유의 눈길을 보내지만, 고개를 단호하게 가로짓는 광해.
마침내, 뭔가 결심한 듯 일어서는 토우.

토우 우리가 다 같이 빠져나가려면 정면 돌파 밖에 없소.
 그런데 밖에 의병들이 있으니 한번 해볼만 합니다.
 물론 그래도 희생은 어쩔 수 없겠지만....

승병 어떤 좋은 방법이라도 있습니까?

토우 저 밑에 있는 강의 상류에 나무를 베는 큰 벌목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벤 나무를 뗏목처럼 묶어 하류로 내려보내곤 했지요.
 (의병을 보며) 아직도 그 벌목장이 있습니까?

의병 있고 말굽쇼! 저도 그곳에서 일해봤습죠.
 여기서 십리 정도 윗 쪽이니 그리 멀진 않습죠.

토우 아침에 그 뗏목이 여길 지나가게 해 주오. 동이 틀 때 우리가
 치고 나갈테니, 사위가 밝아질 때 내려보내면 맞출 수 있을 것어요.

정참판 허면, 강변까지는 어떻게 갈 것인가? 저 많은 왜병들을 어찌 뚫고...

성 구석에 놓여진, 곡식을 나르는 커다란 수레 2대를 가리키는 토우.

토우 고대 중국에서 쓴 전법을 한번 써보는 수 밖에요.
 의병들은 우리가 치고 나갈 때 왜군을 분산시켜 주시오.

의병 그리 전하겠습시다. 나리..

두려움과 긴장과 희망이 스쳐가는 사람들의 모습.

86. 성 안 마당 / 밤

밤새도록 나무를 잘라 커다란 수레에 이어붙이는 대립군들과 피난민들.
문짝도 달아매고 솔뚜껑도 이어붙여, 꼴은 우습지만 차츰 장갑차 형태가 되어간다.
못질을 하는 토우 옆에서, 나무를 옮겨다주는 광해.

광해 대체 어떻게 이런 걸 다 배웠는가?

자신의 붓짐 속에서 불에 반쯤 탄 책을 꺼내는 토우.
그것은 광해가 어가에서 보다가 불에 타자 토우에게 내던진 병법서이다.

광해 (미소) 과연 목숨보다 귀히 여길 만 하군.

그런데 자네는 이곳이 고향인가? 지리에 밝으니...

토우 예전에, 아주 예전에 이 근방에서 국경 근무를 했습니다.
하찮은 말단 군관이었는데 어느 날 여진족이 기습을 했지요.
어찌나 무섭던지 그만 도망쳤습니다.

광해 (놀라는)

토우 동료들은 거반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지요. 잡히면 참형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에 이처럼 이름도 버리고, 평생 도망치는 삶이 되었습니다.
남의 인생을 대신 하면서.

광해 왜 돌아왔나?

토우 그냥 가면...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닐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영영 허깨비가 될 것 같았습니다....정말로.

다시 못질을 하는 토우를 바라보는 광해의 깊은 눈빛.

87. 강계산성 안 / 새벽

강계산성은 짙은 안개에 묻혀있다. 멀리서동이 터 온다.
성문 앞에는 어느새 두 대의 '장갑수레'가 서 있다.
커다란 V자 형태로 장갑이 둘러쳐진 수레는 뒤쪽만 뚫려 있다,
대립군들과 남자들은 수레 뒤로 서서 밀 준비를 한다.
수레 위에는 어린아이와 늙은이, 그리고 심하게 부상을 당한 자들이 나누어 탄다.
광해도 장갑 뒤에서 수레를 민다. 옆에 와서 서는 토우.

토우 아직도 왕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잠시 상념에 잠긴 광해.

광해 자네는 내 백성이 되고 싶나?

토우 ...생각해 보지요.
광해 (미소) 차네 이름은 무언가. 진짜 본명 말일세....
토우 (까마득하다) 그건... 여길 무사히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맞잡은 손에 힘을 주며 미소짓는 광해.
토우, 돌아보면 모두의 눈에는 감출 수 없는 비장함이 서려 있다.

토우다들 살아서 만납시다.

마침내 성문이 열리고, 안개 속으로 조용히 나오는 두 대의 수레.
성 안에서 곡수가 하늘로 불화살을 쏘서 신호를 보낸다.

88. 강계산성 근처 산중턱 / 새벽

백여 명의 의병들이 모여 있는 산중턱....아래쪽으로 왜병들의 진지가 내려다보인다.
성 안에서 불화살이 날아오르며 신호가 보이자, 고개를 끄덕이며 명령하는 의병대장.
일제히 활을 쏘며 동시에 수백 개의 불화살을 날리는 의병들.

89. 강계산성 밖 / 새벽

불화살로 왜병 진지들은 대혼란에 빠진다.
뒤이어 두 대의 장갑 수레가 맹렬히 왜군 진지로 뚫고 들어선다.
급작스런 상황에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 하는 왜군들.

진지 구석의 공달, 죽으려는 듯 턱이의 주머니에서 꺼낸 약을 입에 털어넣는다.
하지만 이내 기침을 하며 내뱉는 공달....
그때, 불화살과 성문을 탈출하는 장갑수레를 발견하고 놀란다.
결심한 듯, 왜군들의 말을 마구 풀어 놓는 공달.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는 왜군 진지.

왜병들이 막아서자 멈추어 서는 장갑수레.
토우와 대립군, 승병 들이 수레에서 튀어나와 왜병들을 베어 마차의 길을 만든다.
탱크처럼 왜군진지를 빠져 나가는 두대의 수레.
뒤늦게 뛰어나온 왜장 고바야시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고바야시 (고함치며) 쫓아라 ~~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

그 순간, 저 건너에서 우루루 치고 들어오는 의병들.
허리가 잘린 왜병들이 전열을 갖추기 힘들어진다.

90. 강변 / 아침

맹렬한 속도를 내며 강가로 내 달리는 두 대의 장갑수레.
그 중 한대가 튀어나온 돌덩어리에 부딪혀 전복된다.
수레가 전복 되며, 사방으로 굴러 떨어지는 사람들...
토우와 일행들, 사람들을 부축해 필사적으로 강변을 향해 뚫다.
아직 뗏목은 도착하지 않았다. 상류 쪽을 보지만 아직 기척이 없다.

왕춘 니미럴, 왜 안 오냐고 여태!

그때 의병들의 저지선을 뚫은 왜군들이 강변으로 달려온다.
하지만 어느 새 달려온 공달이 화살을 날리며 왜병들을 쓰러뜨린다.
측면으로 치달리며 순식간에 십여 명의 왜병들을 쓰러뜨리는 공달...
하지만 어디선가 날아온 총탄에 다리를 맞고 쓰러진다.
다들 안타까워하는데, 그 때 저 멀리서 쨍쨍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

상류를 보면 드디어 뗏목이 떠내려 오고 있다.
나무를 열기설기 엮은 뗏목들 몇 덩이가 서로 부딪치며 떠내려온다.
뗏목 위의 골루타와 의병이 위에서 삿대를 지으며 방향을 조절한다.
물속으로 뛰어들어 기다리는 사람들...

천년 같은 시간이 흐르고 뗏목이 멈추자 우루루 올라타는 사람들...
속이 타는 듯 재촉하는 토우와 대립군들.
서서히 속도를 내며 다시 물 위로 흘러가는 뗏목이 “쿵“소리와 함께 멈춘다.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나뒹그러지는 사람들.

-인서트-

물속 부분이 암초에 걸려있다.

뗏목이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 당황하는 사람들...
멀리 보면 백여 명의 왜군들이 강가 초입으로 막 들어서고 있다.

토우 (물 속을 들여다 본 후) 제기랄...너무 무거워 바위에 걸렸어.
모두 다 내려서 밀자구!! 짐 다 버려!

전부 뛰어 내려 와 있는 힘을 다해 밀기 시작한다.
위에서는 짐을 모두 내던지느라 난리다...다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뗏목.

토우 (다급히) 됐다. 이제 모두 올라가!

토우와 사내들이 다시 뗏목에 올라탄다.

하지만 왜군부대는 이미 강가 중간까지 달려 와 있다.
뗏목이 흘러가고 있지만 왜군의 조총 사정거리 안에 들어있다.
쓰러진 채, 적진에서 멍하니 바라보는 공달.

공달 젠장...저러다 전부 죽겠어.... !

망설임 시간이 없는 일촉즉발의 위기.
토우, 뭔가 결심한 듯 광해를 바라본다.
짧은 순간 눈이 마주치고, 광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다른 대립군들의 얼굴도 한 번씩 바라보는 토우.
그 눈빛에 서린 생사의 갈림길을 눈치 챈 대립군들.... 얼굴이 굳어지고,
망설임 없이 뗏목 밑으로 첩병 뛰어 내리는 토우.

침통하게 바라보던 대립군들도 하나 씩 물에 뛰어든다.
이를 보던 남은 승병 몇 명도 뗏목에서 뛰어 내린다.
어느 새 십여 명의 사람들이 물가에서 강변으로 헤쳐나가고 있다.

왕춘도 결심한 듯, 절뚝이며 뗏목 뺏전 앞으로 다가선다.
막 뛰어내리려는 찰나, 청룡도를 겨누며 막는 조승.

왕춘 (울부짖는) 형님 어찌 이러시오.
조승 이놈아! 그 화살 맞은 다리로 짐만 되니 그대로 있어.
 왕춘이 너 이 놈 명심 해! 내 동생 눈에 눈물 나면
 내가 저승에서라도 쫓아내려 올 것이야.
왕춘 형님!

광해, 난간으로 다가가자 급히 막아서는 정참판.

정참판 (단호히) 아니 됩니다! 절대 아니 됩니다 !
 백성을 위하는 좋은 임금이 되고 싶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저들 모두의 죽음을 헛되이 하시려고 합니까...

어느 새 뗏목은 빠르게 강 가운데로 흘러 내려간다.
토우, 보면 양 옆으로 열 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서 있다.
비장한 눈빛을 서로 주고 받는 그들.
강변에는 점점 더 몰려오는 왜병들의 무리.
뗏목을 향해 조총을 쏘기 위해 수십 명이 대열을 갖추기 시작한다.
그 때, 뭔가 생각난 듯 쇠들을 부르는 토우.

토우 쇠돌아! 넌 돌아가라! 당장 !
쇠돌 네?

토우 약속을 했다. 알려드리기로..

허리춤에서 자신의 호패를 단숨에 떼어내는 토우.
결연한 표정으로 쇠돌에게 던져준다.
다른 대립군들도 모두 호패를 떼어 쇠돌이에게 전해준다.
곡수, 호패를 아무리 뒤져도 없자 당황한다.
발목에 찬 걸 깨닫고 간신히 건네준다.

토우 전해드려라.... 우리가 누구인지. 어서!

머뭇거리다가 뺨목으로 돌아가는 쇠돌.
하지만 저 멀리서 날아온 조총 탄환에 어깨를 맞고 쓰러진다.
물에 떠서 동동 흩어지는 호패들..
피를 흘리며 물에 잠겼던 쇠돌, 이를 악물고 일어난다.

강변을 향해 까맣게 몰려오는 왜병들 모습.
마침내 대립군들, 장갑 수레를 거꾸로 돌려 다시 밀고 적진으로 돌진한다.
왜병들이 수레를 향해 조총을 쏘아대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이제 모든 미련을 버린 채, 운명을 향해 달려가는 대립군들.
공달도 마지막 화살을 먹인다.
무척이나 느리게 흘러가는 최후의 순간... 다들 각자의 상념에 잠겨 있는데,

조승 ...그런데 우리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

토우 뭐가?

조승 망할 대립기간도 끝났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대립비도 못 받고 그냥 공짜로 말야.

조승의 능청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 토우.

토우 ...그럼 의병인 셈인가? 이제 우리 모두?

서로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는 대립군들. 고개를 끄덕인다.
찰나의 작별인사를 나눈 후, 모두들 수레 밖으로 합성을 지르며 뛰어나간다.
왜군들은 이미 총을 쏘려고 대열을 갖추고 있다.
최후의 순간으로 달려가는 토우와 일행들, 오히려 무심한 얼굴들이다.
토우, 장검과 도끼를 양손에 움켜쥐고 고향을 지르며 달려 나간다.
다른 이들도 합성과 함께 각자의 병기를 들고 뒤를 따른다.
토우와 사람들의 얼굴 위로 운명 같은 조총 소리가 겹쳐진다.

공달 또한 벌떡 일어나 왜병들에게 마지막 화살을 날린다.
뒤에서 달려오는 왜병들의 칼에 쓰러지는 공달.

대립군 일행들, 왜병들과 결사적으로 백병전을 벌이다가, 계속 쓰러지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토우의 몸에도 몇 발의 총알이 박힌다.
칼을 들고 비틀거리며 앞으로 달려들던 토우...
마침내 가슴에 최후의 총탄을 맞고 쓰러진다.

토우 일행의 처절한 희생으로 시간을 벌어 강의 중심으로 벗어난 뗏목.
동료들이 하나씩 절명하는 걸 보며 뗏목 위에서 엎드려 통곡하는 왕춘.
목놓아 울고 있는 피난민들.... 샷대를 저으며 눈물을 흘리는 골루타.
광해도 참담한 심정으로 대립군들의 최후를 바라보고 있다.

정참판 저하 위협 하옵니다. 안 쪽으로 옮기시지요.

눈물이 흘러 내리고 있지만, 광해는 끝까지 눈을 부릅뜬 채 바라본다.

광해 대감, 나는 저들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찌...어찌 저들의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름조차 모르는 저들의 마지막을....!

가슴 속에 영원히 담아놓으려는 듯, 결코 눈을 떼지 않는 광해.
강가에 쓰러져 숨을 거둔 대립군들의 모습...
그들의 얼굴이 한명씩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토우가 보여진다.
가슴에서 피를 쏟으며 누워 있는 토우.
떠나가는 뗏목의 광해를 마지막으로 바라본 후 하늘로 고개를 돌린다.
눈이 부시는 듯 찡그리면서 조금이라도 더 하늘을 보려고 애쓰는 토우.
천천히 숨이 멎는다.

모든 미련과 슬픔, 회한을 뒤로 한 채,
눈물짓는 사람들을 배곡히 태우고 강을 따라 하염없이 떠내려가는 뗏목.

91. 평안도 어느 곳 (조선군 군영) / 낮

산 속 풍경 위로 여름의 햇살이 가득 하다.
메미의 울음소리가 요란하고 산하의 녹음은 한층 짙고 깊어져 있다.
수 백 여명의 조선 군병 들이 모여 있는 조선군의 숙영지가 보인다.
숙영지 쪽으로 한 무리의 피난민들이 걸어오고 있다.
그 무리에서 걸어나오는 한 사내.

삼삼오오 모여 휴식을 취하던 병사들에게 사내가 다가간다.
병사, 한심하다는 듯 물끄러미 다가온 사내를 올려 바라본다.

옷은 다 헤지고 찢어진 채이고 양쪽 발의 낡은 짚신은 넝쿨로 묶여 있다.

광해 여기가 신철 장군이 지휘하는 조선군의 진영이냐?

병사들, 줌 어이가 없다.

영락없는 거지새끼가 팔에 어울리지 않는 말투를 쓰는 것이다.

병사1 여긴 군영이오.

 저쪽으로 가면 피란 온 백성들이 모여 있으니 그리 가보쇼.

광해 나는 여기가 신철부대의 진지냐고 물었다.

병사2 그건 왜 물어보시는데?

광해가 품에서 웬 천조각을 꺼내 보여준다.

피에 절어 형체만 간신히 남아 있는 그것...

병사들, 뭔가 싶어 살피다가 교통기란 걸 뒤늦게 깨닫는다.

광해 장군에게 가서 일러라. 이 나라의 임금이 왔노라고.

당황한 병사들, 급하게 장군의 막사로 달려간다.

그제야 주변의 군병들도 금세 웅성거림과 함께 하나 둘씩 자리에서 일어선다.

광해군, 천천히 막사 쪽을 향해 걸어간다. 병사들이 옆으로 갈라지며 길을 내준다.

멀리서 장군들이 달려오는 게 보인다.

오십대의, 눈빛이 매서운 신철 장군이 다가와 광해 앞에 선다.

장군이 교통기를 보지만 광해의 행색으로 그것만 가지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눈치다.

광해가 품속에서 선조가 준 서찰을 내민다.

떨리는 손으로 받아 읽는 신철 장군, 이내 눈물이 글썽해진다.

마침내 무릎을 꿇으며,

신철장군 세자 저하.... 천리길을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철을 따라 무릎을 꿇는 부하들.

꿈을 꾸듯 주변을 둘러보던 광해, 품에서 뭔가를 꺼내 망연히 바라본다.

그것은 토우와 대립군들의 이름이 적힌 호패 묶음.

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상념에 잠기는 광해.

마치 대립군들의 슬픈 영혼을 대하듯 찬찬히 바라보다가,

다시 그 이름들을 손에 꼭 쥐는 광해, 한 방울의 굵은 눈물이 뚝 떨어진다.

장군들의 호위를 받으며 앞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광해.

누군가부터 시작된 환호성이 번져가며 점점 지축을 울리듯 커져 간다.

함성을 지르는 군병들 사이로 사라져가는 광해의 뒷 모습에서 서서히 F.O

92. 별판 /조선부대의 진영 / 낮

멀리 왜군부대가 보이는 조선군의 진영이 보여진다.
수백 명의 조선 군병들과 의병들이 모여 왜군부대와 일전을 앞두고 있다 .
누군가 저벅 저벅 걸어온다... 광해다.
그에게 더 이상 나약한 눈빛은 찾아 볼 수 없다.
앞에서 창을 들고 떨고 있는 한 신병에게 다가오는 광해.

광해 무서운가?
신병 네.
광해 미치도록 무서워야 적을 죽일 수 있다.
 용맹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다. 알겠느냐?
신병 명심하겠습니다.
광해 이름이 무엇가?
신병 이진삼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신병의 어깨를 도닥인 후, 말에 오르는 광해.
말 위의 그에게선 한 나라를 이끄는 군왕(郡王)의 풍모만이 보인다.
넓은 별판 위에는 조선군 부대와 왜군부대가 마주하고 있다.
펼쳐지는 깃발 소리에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광해. 눈을 잠시 감는다.

광해 목소리 저 깃발에 왜 용이 둘인 줄 아는가?
토우 목소리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광해, 칼을 높이 들고 돌격 명령을 내리면 앞으로 힘차게 진군하는 조선군 부대.
조선부대의 함성은 지축을 울리고 군병들의 사기는 드높다.
찢어진 교통기가 선두에 서서 바람에 힘차게 펄럭이고 있다.

<자막>

광해군은 임진왜란 당시에 여러 고을에 격문을 돌려 주변의 군병과 인재를 불러 모으고, 또한 백성들과 함께 앞장서서 왜군과 싸우니, 백성들의 두터운 신망을 얻을 수 있었다. 산속에 도망가 숨은 백성들도 그 부름에 응해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광해군이 격문을 붙인 곳 마다 백성들이 스스로 의병을 모아 서로 앞 다투어 목숨을 바치고 적을 칠 것을 결심하였다. 결국 나라가 왜군의 침략을 방어하고 임진년의 난리에서 재건된 것은 실로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다.

『선조실록』 권116, 선조 32년 8월 丁酉 중 예서 발췌.

-THE END-